

속기사

SINCE 1970

2021 제57호





목차

4 머리말

묵묵히 한 걸음씩 - 이주성

6 인사말

호시우보(虎視牛步) - 손숙자

8 안녕! 우리말

코로나 관련 용어 다듬기

16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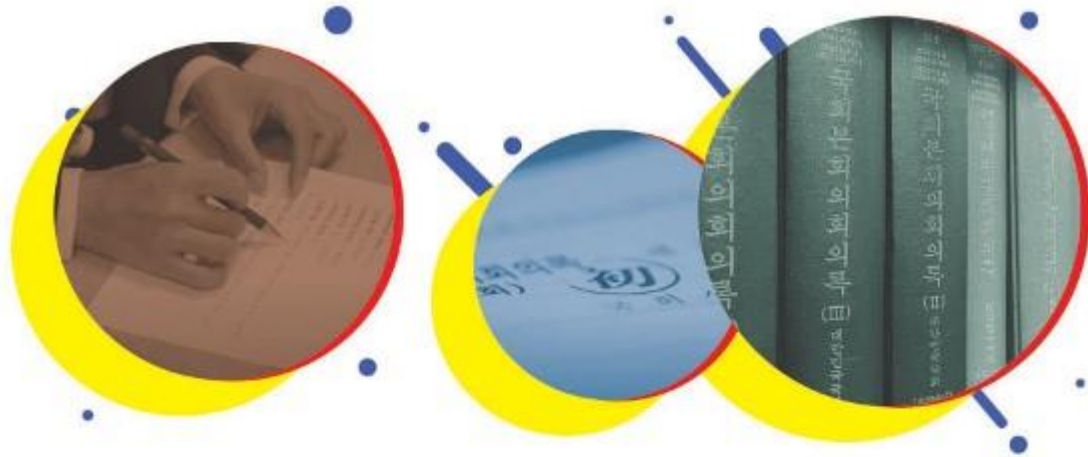
국정감사 화상회의, 국회 속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다!

22 연구논문

한국의 기록문화 고찰을 통한 회의록의 발전 방향 - 2020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74 기자수첩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은 당신입니다'



78 인터뷰

최초의 속기사 출신 홍보기록팀장, 마포구의회 유명란 팀장을 만나다!

82 회원동산

서기, 기자 그리고 속기사 - 이수만(전국속기학원연합회 회장)

수원가정법원 임수현 속기사 인터뷰

90 세대기 인사

개구리의 운칠기삼(運七技三) - 권성민

한 발짝 두 발짝 - 이지희

목표를 향한 노력 - 이지수

100 현장 스케치

2020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104 협회동정

제54회 정기총회

묵묵히 한 걸음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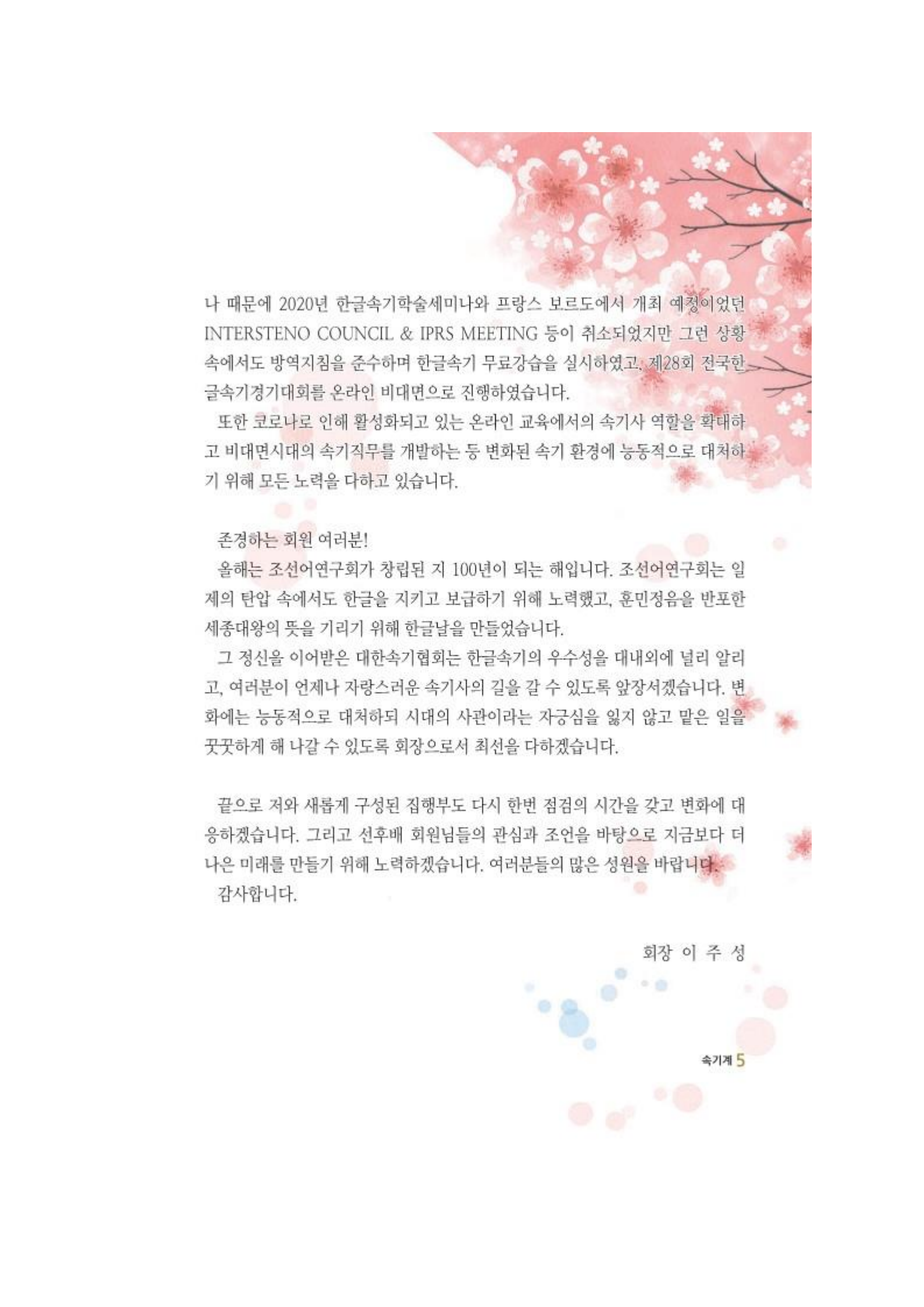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주성입니다.

회장으로서 인사드린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고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속기협회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맘과 열정이 보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은 유난히도 힘들고 다사다난했습니다. 긴 장마와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었고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든 힘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진정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2021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만 특히 코로나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는 이 혁신적인 기술의 활용을 더욱 앞당겼습니다.

대한속기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



나 때문에 2020년 한글속기학술세미나와 프랑스 보르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INTERSTENO COUNCIL & IPRS MEETING 등이 취소되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한글속기 무료강습을 실시하였고, 제28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에서의 속기사 역할을 확대하고 비대면시대의 속기직무를 개발하는 등 변화된 속기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올해는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어연구회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고, 훈민정음을 반포한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한글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속기협회는 한글속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여러분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속기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되 시대의 사관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맡은 일을 깨끗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도 다시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갖고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회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 주 성

호시우보(虎視牛步)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대한속기협회 이사 손숙자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 자의든 타의든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사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 임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속기학술협회로 창립된 이래 올해로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 오랜 기간 속기문화 창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기 영역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였고 속기계, 소식지 등을 통하여 협회 홍보에 힘쓰고 있으며 한글속기학술세미나 개최, 한글속기 무료강습,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 등 속기인재 발굴과 속기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인터스테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속기인들의 위상과 기록의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한글속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협회가 창립된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속기 분야도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문화 때문에 지금 현재 속기산업이 가장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수필과 종이로만 기록되던 속기가 1990년대 이후



기계속기 방식으로 전환되어 빠른 번문을 가능케 했고, 실시간 자막방송을 통해 온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화상회의나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 부분은 우리가 대응해야 할 과제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의 가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회의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각종 기록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킴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더욱 뿌리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속기”가 기록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모여 역사가 되고, 그래서 예로부터 속기사들을 “사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전임 임원진의 노력으로 우리 협회의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글속기의 홍보를 위해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한글속기의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호시우보(虎視牛步)란 말이 있습니다. 범처럼 매섭게 노려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라는 의미로 세상을 내다볼 때는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며 꾸준히 변함없이 앞만 내다보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거스르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의 흐름을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대한속기협회 임원진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회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손 속 자

속기계 7

안녕! 우리말



코로나 관련 용어 다듬기

홍보부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는 2021년 현재까지도 종식되지 않았고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어색해질 정도로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라는 용어를 접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위드 코로나 시대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새말모임¹⁾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대체어로 '코로나 일상'을 선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아닌 코로나 일상으로 처음부터 불렀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번 '안녕! 우리말'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고 그 용어들을 우리말로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1) 새말모임: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교육·홍보 출판·경보통신·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진행됨.



(이미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366&aid=0000601020>)

여러분은 위에 적혀 있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림 속 남성과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누군가 이 단어들에 대해 들어 봤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렇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단어의 뜻까지 정확히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사리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용어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관련 용어들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의학적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접하지 않았던 의학적 전문 용어들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니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에도 쉽지 않은 것이지요. 둘째는 외래어, 한자어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을 순화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코로나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국

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정보를 전달한다면 정보 전달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문제점들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양한 코로나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립국어원 등 다른 기관에서는 이 용어들을 어떻게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등을 다양하게 혼합한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교육부와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회의 결과 블렌디드 러닝의 순화어로 '온오프 연계 교육',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선정되었습니다.

2. 언택트(untact)

언택트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따위를 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관련 용어 중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언택트의 순화어로는 '비대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택트는 다양한 언어들과 합쳐져 파생되기도 하는데요, 언택트 소비는 '비대면 소비'로, 언택트 방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언택트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로 각각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 엔데믹(endemic) / 트윈데믹(twindemic)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영어에서는 ‘풍토병’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엔데믹의 순화어로는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트윈데믹은 비슷한 두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순화어는 ‘(감염병) 동시 유행’입니다.

엔데믹, 트윈데믹 이외에 비슷한 단어들로 에피데믹, 팬데믹 등이 있는데요. 에피데믹은 ‘(감염병) 유행’으로, 팬데믹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으로 순화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엔(n)차 감염

엔차 감염은 감염의 전파 단계로서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확산되는 연쇄적 감염을 의미합니다. n에 해당하는 숫자들은 전염이나 전파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는 엔차 감염의 대체어로 ‘연쇄 감염’, ‘연속 감염’을 선정하였습니다.

5. 코로나 블루 / 코로나 레드 / 코로나 블랙

영어 단어 중에 색깔과 관련된 단어들은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블루·레드·블랙과 코로나19가 합쳐져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인 우울·분노·절망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말모임에서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우울’로, 코로나 레드는 ‘코로나 분노’로,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 절망’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풀링검사(pooling 檢査)

풀링검사는 여러 사람에게서 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후 모두 섞어 한꺼번에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가 양성 나오면 검사 대상자들을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인원의 감염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검사 방법을 의미합니다. 새말모임에서는 풀링검사 대신에 ‘취합 (선별) 검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7. 코호트 격리(cohort 隔離)

코호트 격리는 감염 질환 등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새말모임에서는 코호트 격리 대신에 ‘동일 집단 격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코로나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뜻을 정확히 알고 나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보다 순화어가 더 쉽게 이해되지는 않으시나요? 순화된 용어들은 우리말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해하기도 쉽고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나 불편함도 한층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용어 순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래에 있는 표를 통해 앞에 제시된 용어들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어	다듬은 말	의 미
비말	침방울	재채기나 기침 또는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침방울)
진단 키트	진단 도구(모음)	질병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단하기 위해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여 개발한 검사 기구
온택트	영상 대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
슈퍼 전파자	다수 전파 환자	동일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다른 개인보다 2차 접촉자들을 더 많이 감염시키는 환자
워킹 스루 진료	도보 진료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건물 입구 등 별도로 마련된 곳으로 걸어가서 진료를 받는 방식
드라이브 스루	승차 진료 / 승차 검진	차에 탄 상태에서 진료를 받는 방식
스니즈 가드	침방울 가림막	기침이나 재채기로부터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차단막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권역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국가 이상의 방역 우수 지역이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고 그 용어들을 순화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코로나는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용어들은 계속 생겨날 것이며, 그에 맞춰 관련 기관들에서도 용어 순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기관만의 노력에 그친다면 용어 순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부터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보다 우리말

을 사용하며 코로나 관련 용어 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빨리 코로나 일상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고 자료 -

조선비즈 - 코호트 격리·플링검사·트윈데믹... 코로나 관련 외래어 '범람'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우리말 가꿈이

국정감사 화상회의, 국회 속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다!

홍보부

2020년,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앙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해 우리 경제, 사회, 일상생활 등 모든 것들을 바꿔 놓을 정도였지요. 이 영향으로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평소 보기 드물었던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바로 화상회의의 등장이었습니다.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화상회의인지라 담당 속기사분들의 마음가짐도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사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 보도록 할까요?

-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황유진 코로나19의 여파로 국회에서도 비대면 화상회의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화상회의로 진행된다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재선 국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부 인원을 최소화하였고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화상회의, 즉 비대면 감사를 진행하고 국감의 출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정기록과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직원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익숙하지 않은 업무환경의 변화로 다소 불편함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상훈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녹음 문제나 발언자 체

크, 중복 발언 시 대처가 잘 될까 하는 걱정부터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화상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민 아무래도 자주 해 보지 않았고 대면 회의보다 변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현장에서 속기를 하면서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이후의 발언들인데 화상회의의 경우 마이크가 꺼지면 화면 너머 배석자분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언시간이 잘 준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습니다.

임나연 화상회의를 속기해 본 경험이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 화상회의 속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황유진 아무래도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현장에 있는 기관들을 상대로 음질 테스트를 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해 현장에서도 따로 녹음해 달라고 하였는데,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속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신재선 기술적인 면에서는 서버 등의 문제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동영상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화상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 '청취 불능'의 상황이 다수 발생될 수밖에 없고 질문자와의 동시발언이나 마이크 중단 상황에서 녹음기를 사용할 수 없어 회의록의 질이 저하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 조병욱, 존경하는 김석기 감사관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화여야 국경감사관 위원님!
--저희 먼저 인터넷 (청취 불능).
○반장 김석기 - 지금 거기 업무 보고를 좀 봐 주시지요. 자료를 꼭 이렇게 한번 봐 주시지요.
○김영주 위원 - 자료를 참고.....
○김영호 위원 - 자료 대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지요.
○김영주 위원 - 그런데 사우디에 대한 질의도 서면질의하라고 그래요. 안 들리는데 답변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반장 김석기 -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전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로 대체하시지요.

<참고1. 화상회의 중 청취 불능의 예>

또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화상회의에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회의록에서 발언자의 표기는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데 영상 밖에 있는 자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있을 경우에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안상훈 영상 송출 시 시간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던 동시발언 문제도 거의 없었고 녹음도 아주 잘 되어서 화상회의 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발언 중 끼어드는 부분이 크게 줄어서 회의록 작성에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정우민 회의 진행 도중 간헐적으로 하울링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못 들을 정도는 아니어서 특별히 기계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임나연 영상을 통해 송출되는 음성의 음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 화상회의 속기를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황유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어 위원들의 마이크가 꺼지자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피감기관장들이 질문 내용을 듣지 못해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재선 국회에서 진행되는 화상회의는 개인당 카메라를 설치하여 한 화면에 참석자 수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의실 전체가 나오도록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고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의사소통 및 발언자 파악의 어려움과 함께 회의가 진행될수록 집중도의 저하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안상훈 회의 도중 자리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 다행

히 특이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우민 위원님 질의 도중에 화면 속 배석자 한 분이 미동도 없이 너무 가만히 계셔서 위원님께서도 통신 상태에 이상이 있는 줄 아시고 위원장님께 장비 점검에 관하여 요청하셨는데 알고 보니 해당 배석자분께서 정말 그냥 가만히 계셨던 거여서 장내가 웃음바다가 됐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임나연 코로나19로 인한 화상회의 도입이라는 점이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제가 담당했던 회의는 기재위 국정감사였습니다. 한 위원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견해를 말할 시간을 요청하였는데 질의응답을 하지는 않아서 돌발상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화상회의는 시간 차이로 인해 현장감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기다림으로써 침착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앞으로 화상회의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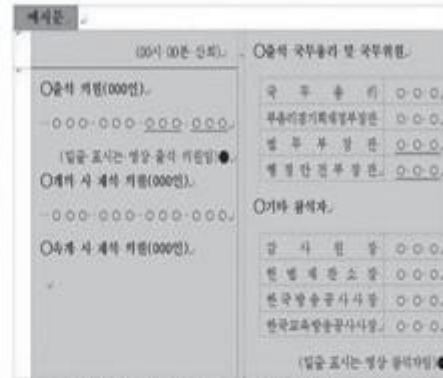
황유진 코로나19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국회에서 한시적으로 원격회의, 원격표결까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비해 회의록 작성 지침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선 화상회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 등을 선형 분석하고 해외 화상회의 현황 및 국내 원격지 간 화상회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서버 접속 불량 상황으로 인해 장시간 또는 단시간 접속이 끊겼을 때의 상황표기 등에 대한 회의록 표기 방법을 체계화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훈 현재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는 모니터가 회



<참고2. 국회의회의록작성편람 중 화상회의의 관련 표기례(표지)>



<참고3. 국회의회의록작성편람 중 화상회의의 관련 표기례(출석명단)>

의장 전후면이 아닌 양쪽 옆면에 설치돼 있는 곳도 있는데 속기석에도 모니터가 설치된다면 화상회의 시 발언자 파악이 용이하게 되어 회의록 작성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정우민 앞으로도 화상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상회의 중 발생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방법 등 관련 체계를 갖추는 노력들이 내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나연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발언시간 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앞으로 화상회의에서는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가 중요한 회의 운영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속기사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10월14일(수) 외교통일위원회
아중동반 국정감사



2020년10월19일(월) 정부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정감사



2020년10월08일(목)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



2020년10월13일(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



2020년10월16일(금)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참고4. 2020년 국정감사 화상회의 모습>

한국의 기록문화 고찰을 통한 회의록의 발전 방향

2020 의회기록발전연구모임

I. 서론

고대부터 인류는 끊임없이 기록을 남겨 왔다. 문자 발생 이전에는 동굴벽화 등 그림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고 지금의 인류, 즉 우리는 문자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글을 올리고 직장에서 회의 중에 메모나 회의자료 등을 통해 무언가를 적어 기록을 남기고 있다.

과거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생활양식, 시대적 상황 등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확인해 왔다. 과거의 기록은 SF영화에서의 타임슬립을 위한 통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과거나 미래로 직접 갈 수는 없지만 기록은 과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과거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록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과거의 기록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보존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과거 선조들의 역사적 산물인 기록문화유산들을 통해 선조가 남긴 기록문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 현재의 국회회의록의 역사와 변천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국회회의록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 기록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

1. 세계적인 한국의 기록문화유산

1-1.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의 시조인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책이며 총 1893권 888책으로 되어 있어 가장 오래되고 방대한 양의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총 2077책이 보존되었는데 이 모두가 매우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¹⁾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 작성에서 실제 편술까지의 편수 간행작업을 직접 하였던 사관은 관직으로서의 독립성과 기술에 대한 비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특히 기초자료 가운데 사초의 경우 사관들이 국가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왕과 신하들이 국사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동시에 그 잘잘못 및 인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밀사무 등을 직필했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수준을 잘 보여 주는 자료이다. 본격적인 사관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실록의 편찬은 다음 국왕이 즉위한 후 실록청을 개설하고 관계관을 배치하여 편찬하였으며 사초는 사관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군주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연 관리와 서연 관리, 왕세자 사이의 학습 내용과 주고받은 대화까지 복원 가능할 만큼 철저히 기록됨으로써 국왕의 행동과 생각들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그림 1] 조선왕조실록 표지

실록 편찬은 각종 기록들이 실록청에 수합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편찬에 임하는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다. 대체로 총재관(總裁官)과 당상(堂上)·낭청(郎廳)의 직함을 주어 여러 부서로 나누어 편찬하도록 했는데 도청(都廳)과 1·2·3의 방(房)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

실록은 국왕이 죽은 후에 편찬되었고 후손 왕들은 실록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술한 국왕들이 선대의 실록과 사초를 열람하려 했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쿠데타로 조선을 건국했으므로 사관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성계는 태조 4년, 1395년 당태종의 고사를 들어 국왕도 사초를 볼 수 있다면서 즉위 이후의 사초를 모두 제출하라고 명했다. 국왕이 사초를 보면 직필이 불가능하다면서 대신들이 반대하자 왕은 일단 이를 수용했지만 3년 후 다시 사초를 보겠다고 고집하면서 기어이 사초를 제출하게 했다.

2) 한국인문학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태조는 제출된 사초의 상당 부분을 수정하게 했다. 이성계를 미화시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다. 태종도 태조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관들에게 사초를 고치도록 했다. 개국 당시의 기밀은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관이 쓴 사초는 부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역사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결국 조선왕조실록의 중요성과 의의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당하지 못한 집권이 후대에 전해질까 두려웠던 것이다.

세종은 당대 기록인 사초는 보려고 하지 않았으나 선대의 실록만은 보고자 했다. 실제로 태조실록을 열람한 후 세종 13년, 자신의 아버지인 태종실록이 완성되자 전대의 제왕들 중에 선대의 기록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으면서 태종실록을 보려고 했다. 이때 맹사성이 국왕이 실록을 본다면 사관들이 두려워 직필하지 못한다며 세종의 실록 열람을 반대했다. 세종은 맹사성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세종 20년, 당대의 역사인 사초를 보는 것은 안 되지만 선대 실록을 보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논법을 제시하며 다시 실록을 보고자 했다. 이번에는 황희와 신개가 세종의 실록 열람을 반대했다. 그들은 '선대의 실록은 비록 당대는 아니나 편수한 신하들이 모두 살아 있다. 만약 왕이 실록을 본다면 이들의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다'라고 반대했다. 세종은 이들의 간언을 받아들여 태종실록을 보지 못했다. 세종이 몇 차례에 걸쳐 실록을 보려고 했음에도 끝내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일화는 조선왕조에서 중요한 전례로 작용했다. 이후 왕이 실록 열람을 요청하면 신하들은 세종의 예를 들어 국왕의 실록 열람을 견제했다.³⁾

조선왕조실록에도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작성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사초실명제 때문이다. 작성자가 분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관이 소신껏

3) 신광철,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12, p54.

사초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록의 권위와 공정성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초실명제의 폐단이 논의되었지만 그때마다 대신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당시 사관들의 직급은 매우 낮았지만 자신들보다 직급이 높은 대신들일지라도 불의와 정도를 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소신껏 비판했다. 대신들은 항상 자신에 대한 내용이 사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적혀질지를 우려했으므로 사초실명제는 사관들에게 압력을 주는 좋은 장치였다. 그러므로 대신들은 사관들이 주관적으로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사초실명제를 옹호했다.⁴⁾

실록에 수록되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국왕과 신하들의 인물 정보, 외교·군사 관계, 국정의 논의 과정, 의례의 진행, 천문 관측자료, 천재지변 기록, 법령과 전례자료, 호구와 부세(賦稅)·요역의 통계자료, 지방 정보와 민간 동향, 계문(啓聞)·차자(箋子)·상소와 비답(批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록을 만들 때마다 일정한 범례를 만들어 기사의 취사선택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는 하지만 국정의 운영이나 사회의 동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실록에 수록된다.

이처럼 철저하게 역사를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왕조실록의 큰 의미는 왕이 자신의 언행이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권력을 행사해야 했다는 것이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왕에게 큰 압력을 줄 수 있었다.

조선에서 실록이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의 언행이 후대인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미래지향적 의식 때문이었다. 현재를 살아가지만 늘 미래에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

4) 이종호, "유네스코 등록 조선왕조실록" 네이버뉴스 2005. 7. 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7&oid=078&aid=0000016137>>

던 것이다.⁵⁾ 국왕의 동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은 막강한 왕권 중심 체제에서 국왕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이자 정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셈이다.⁶⁾

조선왕조가 상대적으로 부정과 비리가 적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철저한 기록문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역사서보다 실록은 왕권을 제약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실록은 단지 역사 기록으로서만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니었다. 실록 편찬 자체로 현실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록이 술한 정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특별히 설치한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된 기본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고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는 세초(洗草)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 번씩 꺼내어 포쇄(曝曬)하였고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실록들이 소실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재출간하거나 보수하여 20세기 초까지 정족산·태백산·적상산·오대산, 네 곳의 사고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뒤 실록도 수난을 겪게 되었다. 정족산·태백산 사고의 실록은 도서와 함께 조선총독부로, 적상산 사고의 실록은 구황궁·장서각에 이관되었다. 그리고 오대산 사고의 실록은 일본의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 갔다. 그 뒤 동경제국대학으로 반출해 간 오대산본은 1923년의 일본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당시 대부분 타서 없어졌다. 조선총독부로 이관

5) 김문기,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15. 1. p67.

6) 김문식·신병주,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2005. 6. p23.

했던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1930년에 규장각 도서와 함께 경성제국대학으로 이장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었으나 이후 태백산본은 1980년대 부산광역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일본으로 반출된 오대산본 47책은 2006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반환되었다. 그리고 적상산본도 구황국 장서각에 그대로 소장되었으나 광복 직후의 실록 도난 사건으로 나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것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북한 측에서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큼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는 실증적인 기록이며 역사의 산실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 시대의 칼날 같은 논쟁과 축제의 분위기까지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생생한 분위기와 언행이 제3자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으로 적혔다는 점에서 진실로 특별하고도 중요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역사기록물이자 우리의 소중한 기록유산이다. 25대 군주의 실록이며 472년간의 역사를 수록한 것이기에 한 국가나 왕조에 대한 기록으로서도 가히 세계 최대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산이다. 역사 기술에 있어서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으며 사관에 대한 독립이 완벽하게 지켜졌고 비밀 보장이 철저하여 조선시대를 거의 사실대로 볼 수 있는 훌륭한 역사서이다. 조선왕조실록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따진다면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록 부분적으로 곡필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인간이 역사를 쓰고 인간이 역사를 평가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이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위정자가 바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한 사대부의 승리를 의미하는 기록물이었다. 왕의 독주를 견제하는 장치로 이보다 확실하게 만든 장치는 있을 수 없다. 역사 앞에 당당하라는 계시였고 감시였다. 조선을 사대부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견제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강자와 약자의 공존을 도모한 위대한 기록이다.⁷⁾

1-2. 승정원일기

승정원은 조선 정종 대에 창설된 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기밀을 취급하던 국왕의 비서실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국정과 관련된 내용, 왕명 출납과 제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일기 형태로 기록한 책이다. 관원 및 관서의 보고와 이에 대한 임금의 명령 등 승정원을 거쳐 가는 거의 모든 기록이 이 책에 남아 있다.⁸⁾ 총 3243책의 기록이다. 1623년부터 1894년까지는 승정원일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비서원일기, 규장각일기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 기록되었다.

승정원일기의 내용은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실의 기록으로 날짜와 간지(干支) 및 날씨, 각방 승지의 좌목(座目)과 주서(注書)의 성명, 각조나 각사에서 임금에게 올린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임금의 전교 및 비망기, 관인이나 유생의 상차·상소와 그에 대한 비답, 이병조의 정주, 임금의 거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사, 기타 임금에게 보고되는 사항 등을 전부 작성하여 조선시대 의례와 행정에 대한

7) 신광철,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12. 1., p63.

8)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⁹⁾ 물론 신료 인접에도 참석하여 국왕에게 조언하기도 하였다. 이는 승정원 관리들이 국정 운영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선시대 왕들은 실록을 볼 수 없었으므로 국정에 참여하기 위해 승정원일기를 자주 이용하였다.

국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방대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관과 주서라고 할 수 있다. 주서는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삼사에서 특정 관료나 사안에 대해 비판할 때도 그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주서는 왕과 신료가 만나 국정을 논의하거나 경연을 행할 때 반드시 참석하여 그 대화 내용을 일일이 기록하는 사관의 역할도 겸하였다. 주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승정원에서 처리된 공문서, 상소문을 비롯하여 자신이 입시하여 기록한 사초까지 정리하여 승정원일기를 작성하였다.



[그림 2] 승정원일기 7책의 표지

정론직필의 주체인 사관과 주서는 왕의 바로 옆에서 왕의 말을 실시간 한문으로 번역해 속기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승정원일기는 가장 빠르고 쉽게 적을 수

9) 박윤서,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의 통합정보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2017. 8. p42.

있는 고도의 한문 실력을 가진 사람이 쓸 수 있는 초서로 되어 있다. 동시통역과 속기록 기사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역할이었다. 속기록은 이미 600여 년 전부터 있었다. 먹물을 갈아서 찍어 써야 하는 불편한 방법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대화 내용을 한문으로 동시 번역하면서 기록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독보적이다.¹⁰⁾

물론 이러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리 주서의 한문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즉석에서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 적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연 등의 상황에서 국왕이나 신하가 차례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말소리의 크기도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주서들로서는 이들의 말을 옮겨 적기는커녕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주서가 사사로이 해당 인물을 찾아가서 말한 내용을 받아 적어 오기도 하고 국왕이 이를 다시 물어보아 내용을 알기도 하는 등 주서들의 기록과 승정원일기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이러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를 작성하는 주서들이 경연에서 오갔던 대화를 기록하는 데 있어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못해 문제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주서 개인의 성향이나 능력에 따라 상황은 달랐겠지만 승정원일기의 작성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서가 잘못 기록하더라도 일기를 소급하여 고치는 것이 불가하다는 언급을 통해 승정원일기가 원칙적으로 한 번 작성된 이후에는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¹¹⁾

10) 신광철,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12. 1, p95.

11) "일기를 소급하여 고치는 것은 뒷 때단에 크게 관계되니 전에 명하신 것을 거두어야 하였습니다." 『속증실록』 10년 3월 갑신(甲申)

그래서 주서들은 초책을 완성한 이후 다른 사관들과 비교·대조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까지 총 3인이 경연 등에 참가하여 오가는 대화를 옮겨 적었기 때문에 모든 일과가 끝난 후 이들은 자신이 미처 기록하지 못한 부분이나 잘못 번역하여 기록한 부분 등을 서로 비교해 가며 고쳤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러한 작업을 거치더라도 경연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조선조 내내 승정원일기의 작성은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기록 방식은 한 달을 기준으로 책머리에 월간 경연 상황, 내전의 동향을 기록하고 다음으로 승정원의 관리 및 당직자의 표시와 출근 실태를 표시하고 마지막에 승정원의 업무현황, 왕 및 내전의 문안, 승정원의 인사관계 등의 내용을 실었다. 또한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에 관한 방대한 규모의 사실적 역사 기록과 국가 비밀을 담고 있다. 특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기록된 일기는 서구의 영향력이 당시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왕조의 문호를 어떻게 개방하였는지 잘 보여 준다.

승정원일기의 편찬자는 승지와 주서가 담당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국정업무는 육조(六曹)를 통해 수합되었고 육조는 이를 다시 승정원의 승지에게 보고하였다. 해당 승지는 이를 다시 왕에게 보고하였고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담당 승지가 받아 해당 부서에게 전하였다.

본래 승정원일기는 1623년부터 1894년까지 3047책이었다. 승정원의 기능을 이어받은 관서의 일기까지 합하면 모두 3245책으로 된 필사본이다. 현재 1623년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승정원일기는 전란이나 화재로 상당수의 기록물이 소실되어서 여러 번 보수했다. 영조는 1746년 일기청을 설치하고 승정원일기의 보수를 위해 조보(朝報)를 비롯해 각사의 일기·등록 등 기본 사

료와 관인의 일기·문집 등을 널리 이용해 보수에 만전을 기하였다.

원래 주서는 재임 당시 공적으로 승정원일기를 만들어 둘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록의 편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적으로 사초를 만들어 두었고 또한 보수에는 사초 이외에 일성록과 조보, 각사등록 기본 사료와 관인의 일기, 문집 등이 이용되었으며 항목마다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것보다는 소략하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원본에서 누락된 부분이 보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치밀함에 대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업무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이나 반란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불에 타거나 사라진 것들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자료와 당시의 여러 기록물을 남겼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작성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당대에 기록정신이 얼마나 투철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¹²⁾

또한 속기용 기록이어서 가감이 있기 어렵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날마다 기록하는 것이어서 진실의 왜곡이 어려웠다.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한 자는 발언에 대한 내용을 일기에 가감 없이 적었다. 기록은 국가의 중대사와 인간관계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기록은 발언자와 행동한 자에 대하여 후손들이 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승정원일기는 다른 기록과 달리 있는 그대로를 적을 수밖에 없었다. 날마다 보고하는 일지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승정원일기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일기로 300년간의 국문학의 변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국문학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유교사회 내부로부터 자생적인 천주교 수용이 민중들 사이에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한

12) 신광철,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12. 1, p101.

정치권의 대응 등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기본자료로 활용되었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 최대의 기밀 기록인 동시에 사료적 가치에 있어 조선시대 기록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절대 지존인 왕의 하루 일과를 속기록처럼 적어 역사 앞에 세웠다. 그리고 역사가 다시 왕을 평가하도록 하여 역사 앞에서 당당한 행위와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기록의 금자탑이다.

1-3. 비변사등록

비변사등록이란 조선 중·후기 국가 최고 회의기관이었던 비변사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비변사의 약칭이 비국(備局)이었으므로 '비국등록(備局謄錄)'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이전의 비변사등록은 모두 소실되었고 현재는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276년간의 기록 273책이 남아 있다. 등록은 1년 1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건이 많을 때에는 2책 또는 3책으로 작성하는 것도 있었다.

비변사는 고종 2년(1865)에 폐지되었음에도 1892년까지 등록이 기록된 것은 비변사 폐지 이후 의정부가 비변사의 역할을 계속 담당하면서 의정부등록과 같이 명칭만 다를 뿐 종전과 똑같은 체재의 등록을 작성해 왔기 때문이다.

비변사는 삼포왜란(중종 5, 1510)을 진압하기 위해 임시기구로 설치되었다가 을묘왜변(명종 10, 1555)과 임진왜란(선조 25, 1592)을 거치면서 그 기능이 확대·강화되었으며 이후 국정을 논의하는 최고 관부로서 기능하였다. 임시기구로 존재할 당시의 등록 작성 여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명종 10년에

국가 상설기구로 확정된 때부터는 등록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진왜란으로 다른 기록과 함께 모두 소실되어 왜란 후 1616년(광해군 8)까지, 즉 전후 합계 62년간의 등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617년(광해군 9)부터 1892년(고종 29)까지 276년간의 등록 273책만이 남아 있다.

비변사 회의는 자체에서 하는 주좌(籌坐)와 임꺽하여 열리는 빈좌(賓坐)가 있었다. 주좌는 비변사에서 비변사 고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빈좌는 대신과 비국의 당상이 정해진 일자에 대궐에서 회동하여 최고국가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렇게 행해진 두 회의에서 낭청이 매일매일 그 회의 내용과 의결 과정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변사등록이다. 비변사등록은 국보 제152호(1973)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관찬 사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좌쪽: 인조 2년 2월
[그림 3] 비변사등록

우쪽: 인조 2년 2월 1일

비변사등록은 언제부터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비변사가 관서로서 기능하면서부터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고종 2년 이후의 것은 원본 표지에 ‘의정부상(議政府上)’ 또는 ‘정부상(政府上)’이라 쓰여져 있다. 따라서

엄격히 말해 ‘의정부등록’이라는 명칭이 적합하겠지만 그 체제가 철종 이전의 것과 똑같아 일반적으로 이것도 비변사등록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비변사등록 결본을 감안한다면 양적인 면에서 볼 때 조선왕조실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결본이 있음에도 영조, 순조, 헌종, 철종 대는 조선왕조실록보다 비변사등록의 글자 수가 오히려 많다. 비변사등록은 1차 사료로 비변사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한 반면 조선왕조실록은 임금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초·시정기,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 1차 사료를 토대로 취사선택하여 편찬한 2차 사료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비변사등록이 결본 없이 모두 전해진다면 양적인 면에서 조선왕조실록보다 오히려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을 수록하고 있고 비변사등록은 특히 인사, 재정, 국방, 외교, 군사 관련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두 자료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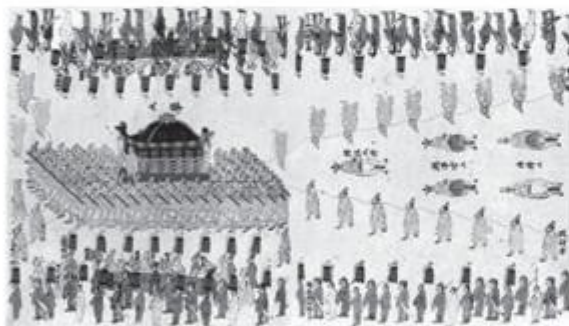
시기별로 살펴보면 선조 대에는 국방, 외교 사안이 대다수였고 계사의 건수도 임진왜란 중에 집중되었다. 광해군 대에도 국방, 외교 건수가 다수였다. 인조 대에는 국방 사안의 비율은 낮고 외교 사안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재정 사안의 경우 균형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효종 대에는 외교 사안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국방, 재정 순으로 비중을 드러냈으며 현종 대는 비변사보다는 비변사 이외의 처리 비율이 높았고 계사는 효종 대에 비해 그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비변사등록은 명실상부한 조선시대의 중요 사료이다. 비변사등록은 조선시대의 비변사 운영, 인사, 재정, 외교, 군사 등에 관한 기사를 포괄하고 있는 자료이면서 지방 지배, 민심 수습책, 풍속 교정, 형벌 등 일반민 관련 자료가 풍부하여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성문화되어 있는 기사들을 매일매일 수록한 것으로 기사 내용에 편찬자의 주관적 의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사료 그대로이다. 따라서 비변사등록 사료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변사등록의 자료적 가치는 매우 크다.

1-4. 조선왕조의례

의궤는 조선시대에 국가와 왕실에서 행해진 여러 행사나 사업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는 어떤 행사나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임금에게 사업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로서의 성격과 향후 유사한 행사를 진행할 때 참고하기 위한 지침서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녔다. 혼인, 장례, 연회, 외국사절 환대와 같은 중요



[그림 4] 반차도

한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의전(儀典)·형식 절차 및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고 왕실의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외에 궁전 건축과 묘 축조에 관한 내용도 자세히 담고 있다. 의궤는 3895권이 넘는 책으로 시대와 주제별로

분류·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왕실의 의식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 수 있고 동시대 동아시아의 다른 문화와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의궤는 장기간에 걸쳐 조선왕조의 주요 의식을 방대한 양의 그림과

글로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기록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의궤는 조선 초기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으로 국가기록물들이 많이 훼손되면서 조선 전기에 제작되었던 의궤들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600여 년에 걸쳐 왕실의 주요 행사, 장례식, 연회, 사신 영접 등뿐 아니라 건축물, 왕릉의 조성과 왕실문화 활동에 대한 기록이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 600여 년의 생활상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총 3895여 권의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 의궤는 왕실의 주요한 의식이 시기별,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조선왕조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를 비교 연구, 이해하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을 곁들여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지금도 조선시대의 행사를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 의복의 색깔이나 모양, 장비 그리고 배열 순서까지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있다.

의궤에는 왕명을 정리한 전교(傳敎), 관원들이 왕에게 올린 문서인 계사(啓辭), 상하 등급의 여러 관련 관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모은 이문(移文), 내관(來關), 감결(甘結), 관련자들의 명단을 적은 좌목(座目) 등이 기록되어 있어 행정적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원 및 물자의 조달에 관한 재정 수입과 내막 등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의궤는 조선왕실의 궁중문화 연구의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실록이나 각종 자료에 정확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려웠던 궁중의 생활 문화에 대한 실마리를 의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장례나 제사에 이르기까지 그림과 글이 함께 전하고 있어 구체적인 검증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의궤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아름다운 기록화이다. 의궤에 포함된 수많은 각종 기물 및 시설의 도면이나 사람들의 배치도인 반차도(班次圖)는 미술사 연구와 복식사 연구 등에도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의궤는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도구나 건물 등을 그림으로 그려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의례 행렬을 표현한 그림은 화려한 천연색으로 실어 놓아 당시의 회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반차도, 도설 등 행사 모습을 묘사한 시각 콘텐츠는 오늘날의 영상자료처럼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 준다. 이런 시각 중심 형태의 기록유산은 뛰어난 미술장인과 사관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군례에 대한 자료를 통해 당시의 군사 및 국방 영역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의궤는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원화성이다.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원형이 아니라 복원된 문화재가 등재된 사례는 수원화성이 유일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수원화성의 원형은 많이 훼손되었고 일부 건물을 제외하면 수원화성은 전면적으로 복원된 편에 가깝다.

그런데도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긴 기록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문화의 힘으로 수원화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복원될 수 있었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궁중의례 재현 행사에 여러 의궤를 활용하고 있다.

의궤는 대부분의 유교사회에서 잊혀진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기록이다.

또한 의궤는 조그마한 군주국가의 기록이 아니라 한때 세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유교 전통의 핵심을 대표하는 기록이다.

조선시대의 의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철저한 기록정신이다. 의궤를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치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전통문화의 현장을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록유산의 특별한 양식은 동서양을 통틀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왕조의궤는 역사의 재현을 위한 한국인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1-5.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0여 년이나 앞선 것으로 2001년 9월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공식 인정받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고려 말에 백운화상(白雲和尙, 1299~1374)이 엮은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은 선(禪) 불교의 요체를 담고 있다. 여러 부처와 고승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누구라도 선법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는 1377년 7월 청주의 흥덕사(興德寺)라는 옛 절에서 가동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인쇄되었다. 승려였던 석찬(釋贊)과 달담(達湛)이 직지의 간행을 도왔고 묘덕(妙德)이라는 여승이 이에 필요한 재원을 시주하였다. 직지는 본래 상·하 2권으로 인쇄되었으나 상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은景德傳燈錄(景德傳燈錄),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등의 사전부(史傳部)의 여러 불서(佛書)를 섭렵하고 역대의 여러 불조사(諸佛祖師)의 계(偈), 송(頌), 찬(讚), 가(歌), 명(銘), 서(書), 법어(法語), 문답(問答) 중에서 선(禪)의 요체(要諦)를 깨닫는 데 필요한 것만을 초록(抄錄)하여 찬술(撰述)한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불조직지심체요절의 직지심체는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이라는 수신오도(修身悟道)의 명귀에서 채록한 것으로 참선하여 사람의 마음을 직시(直視)하면 그 심성이 곧 부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직지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음을 공인받는 계기가 되면서 세계 출판 역사를 다시 쓰게 한 획기적인 책이 되었다. 한민족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적인 역할을 스스로 개척해 온 나라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인쇄술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교정을 쉽게 하여 주었고 이 모든 것은 책의 신속한 생산에 공헌하였다. 또한 활자 인쇄술에 적합한 먹, 즉 기름먹을 발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이 혁신한 실용적인 활판 인쇄술은 동양 인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유럽 등지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지난 1000년간 인류문명에 가장 영향을 끼친 기술적 혁명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전달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인류문화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한 면에서 직지의 가치는 단순히 세계 최고의 금속활

자 인쇄도서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보전달 매체의 시초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가동(可動) 금속활자본의 증거로서 인류의 인쇄 역사상 매우 중요한 기술적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서양에서 처음 나왔다고 전해지는 금속활자본 구텐베르크보다 70여 년이나 앞서 투박하지만 뛰어난 간행기술을 보여 줌으로써 정보, 기술에서 현재 우수한 위치에 서 있는 우리 민족의 역량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이다.

2. 기록문화의 가치와 의의

역사는 한 줄의 기록에서부터 시작된다. 역사는 특별한 것이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기에 특별해진 것이 대부분이다. ‘기억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문화가 된다’는 말이 있다. 또 ‘기록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미래가 된다’는 말도 있다. 기록문화의 가치를 강조한 표현들이다.¹³⁾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왜곡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기록은 그 당시에 발생한 사건의 정황을 그대로 보존시켜 준다. 기록은 기억을 연장시키며 그 기록들은 차곡차곡 쌓여 역사를 만들어 낸다. 이 땅을 살다 간 선인들의 문화와 전통이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은 기록이 있기에 가능했다. 우리 인류가 역사 속에서 진화하고 발전한 것 역시 기록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존재만으로도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다. 온고지신이 가능한 것도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국가와 통치자의 기록은 역사가 되어 미래의 지표가 되고 있다. 기록유산 속에서 전해지는 선인들의 정신

13) 김상진, “기록문화의 가치”, 대구일보, 2019. 12. 9.

적 가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좌표가 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기록은 역사 및 문화 정체성을 찾는 통로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기록들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선조들이 남긴 기록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현대에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Ⅲ. 국회회의록의 역사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현재인 21대 국회까지 이어 오고 있다. 국회가 이어 오면서 국회회의록도 계속 남겨져 왔다.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위정자에 따라 기록과 기록자가 위기에 처하고 국회기록 또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남겨진 기록들은 많은 것들을 담고 있으며 남겨진 기록들의 가치는 후세로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더 나은 국회회의록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래로 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회회의록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1. 과거의 국회회의록

1-1.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속기록

국회회의록은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하 우리말 말살정책으로 속기사 양성이나 연구보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우리말

속기 창안자들은 속기문화의 씨앗을 뿌릴 터전을 마련할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우선 1차로 1946년 12월 세 사람이 과도입법위원회에 들어가 속기실무에 임한 데 이어 속기진을 계속 보강해 가며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기록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46년 12월 11일 오전 10시 김규식 박사 외 52명의 의원이 참석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예비회의에서부터 그 활동이 개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1-2. 제헌국회의 국회속기록

제헌국회의 속기사는 주로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경험을 쌓은 속기사들로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제1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였으며 이때 회의록 또한 작성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림 6] 제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제1회 제1차 속기록

2년 임기의 제헌국회가 끝나고 1950년 6월 19일에 개원된 제2대 국회는 동란 다음날인 6월 26일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었다. 속기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작성되어 온 회의 기록도 6·25 발발 전후 3차 회의와 9·28 서울수복까지 피난국회(37차) 중 중단되어 애석하게도 조국의 수난을 둘러싼 국사를 논

의한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은 우리 의정사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전쟁 직후 속기사 양성기관들이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나 신인 속기사의 발굴은 극히 어려웠다. 따라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속기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국회가 자체적으로 양성기관을 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1951년 11월 30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12월 1일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 약 120명의 제1기생을 선발하여 국비양성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¹⁴⁾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사건, 4·19혁명으로 인한 내각제 개헌안 등이 전문 속기사들의 기록으로 속기록에 남겨지게 된다.

1-3. 1960년대 국회회의록의 발전 · 수난 · 정착기

1960년 4·19혁명 이후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로 바뀌었고 의회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구성되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제5대 국회는 다른 국회와는 다르게 그 역할과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져 국회속기록 작성이 법규로 명문화되는 발전을 이룩한다. 제5대 국회 개원 이후 제9차 국회법 전부개정 시 위원회회의록도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도록 하였다.¹⁵⁾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거쳐 1963년 제6대 국회 개원을 위해 폐지 제정된 국회법에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신설된다.¹⁶⁾

14) 대한속기협회, 『속기50년사』, 1998, p71.

15) 국회법 전부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제63조(위원회회의록) ㉔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이를 속기한다.

㉓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16) 국회법 폐지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제64조(위원회회의록) ㉔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법에 의하여 이를 속기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대 국회까지는 회의록과 속기록 두 가지를 작성하였다. 회의록이 의결 결과에 중점을 두어 요점만을 기재하였다면 속기록은 속기 방법에 의하여 발언한 대로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



[그림 7] 1961년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제1차 회의록

게 별도로 작성되던 회의록과 속기록을 하나로 통합하여 속기한 의사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19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에 의하여 제5대 국회는 9개월여 만에 종식되었다. 5·16으로 민·참 양원이 해산됨에 따라 100여 명에 달했던 속기사들이 일시에 직장을 떠나야 했다. 그때의 회의록을 보면 제5대 국회

까지의 회의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회의록을 남기게 된다. 회의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국가재건최고회의 회의록은 요약 보고 형식의 회의록이었다.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체되고 동년 11월 26일 총선거에 의하여 제6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의회정치가 2년 7개월 만에 부활된 것이다. 제5대 국회까지 본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회는 제6대 국회부터 상임위원회 중심제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원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속기사의 전문성도 함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기록하기 위해 47명의 속기사가 다시 국회로 들어와 회의록 작성에 종사하게 되었다.



1-4. 국회회의록 체제의 정착

제7대 국회는 제61회부터 제76회까지로서 회의록 체제의 변화를 통한 국회회의록의 정착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국회공문서내규 제9조의 공문서는 가로쓰기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 내에서의 각종 의안 및 간행물을 횡서로 발간 배부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공문서, 유인물, 교과서 등을 횡서로 발간하였으므로 이와 통일을 기하고 실무 면에서 횡서로 작성하는 것이 능률을 기한다는 점에서 1968년 1월 31일 제7대 국회 제63회(임시회) 개회식부터는 회의록을 횡서 좌우 2단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제73회 국회부터 다시 한번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제헌국회부터 제7대 국회 제72회(정기회)까지는 국·한문을 혼용하였다. 특히 제헌국회와 제2대 국회에서는 한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제7대 국회 제63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체제변경및한자사용제한에관한동의의견’ 심사에서 특수한 용어는 한자로 표기하되 일반적인 사항은 한자 사용을 제한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72회 말에는 의사일정, 회의록 및 국회공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다만 성명, 지명 등 고유명사는 한자로, 뜻의 전달이 곤란한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1970년 5월 11일 제7대 국회 제73회(임시회)부터 1973년 6월 27일 제9대 국회 제87회(임시회)까지는 한글 전용으로 회의록을 발간하였다.¹⁷⁾

17) 대한속기협회, 『속기50년사』, 1998, p289.

1-5. 1970~1980년대 국회회의록의 암흑기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제8대 국회를 해산시켰으며 국회의 권한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제헌국회 때부터 제8대 국회 때까지 해마다 실시해 오던 국정감사는 유신체제하인 1973년 2월 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법폐지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이 의결, 공포됨으로써 폐지되었다.

또한 회기가 단축되기도 하였다. 제헌국회부터 제5대 국회까지는 국회의 회의 일수에 제한이 없었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도 의결에 의해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제6대 국회 이후에는 법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에서는 정기회의 회기를 90일로 축소하면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했으며 정기회의 집회일을 매년 9월 20일로 늦추었다. 이는 가능한 한 국회를 닫아 놓고 활동을 못 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국회 개회 일수는 국회회의록의 작성과 비례했으므로 회의록의 작성 수도 적어지게 되었다.

유신체제가 끝나는 1979년은 국내외에서 조성된 체제교란의 제반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일시에 다가선 해이기도 했다.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및 석유파동, 한국 경제의 심각한 불황 국면으로 정국이 어수선했으며 곧이어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의 총재 당선과 관련하여 ‘신민당 총재단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한 끝에 김영삼이 의원직에서 제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무렵 미국에서 발행되는 뉴욕타임스 1979년 9월 16일자에 ‘카터 미 행정부에 대하여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끝낼 것을 요구하

1-6. 1990년대 이후 국회회의록의 변영기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한국 정치는 정치적 민주화의 기본조건 확보, 시민운동의 외연 확장, 노동운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 시기 이후를 민주화의 시기로 간주하고 있다.

유신체제하인 1973년 2월 7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폐지되었던 국정감사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되어 1988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 만에 다시 부활되었다. 또한 국정조사 부활, 연간 회기 제한 규정 삭제, 청문회 제도 도입 등 의회정치의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법제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국회회의록도 변영기를 맞이하였다. 회의록의 양적 증가는 물론 국회회의록이 갖는 기록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위원회는 법안 및 의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는 회의체로서 2005년 이전에는 국회법에서 속기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요지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어서 안건 심사의 핵심적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05년 8월 개정 국회법에서는 이와 같은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소위원회에서도 속기 방법으로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¹⁹⁾ 이로 인해 국회 속기사들 또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현재의 국회회의록

1990년 중반부터 일어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화혁명은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진행되어 왔다. 전자정부가 구현되기 시작하였고 국회 또한 이러한 추세

19) 유희연, "한국정치와 국회회의록 체계의 변천", 국민대학교 대학원, 2009, p101.

에 발맞추어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 하나로 2002년에 전자회의록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책자회의록 서비스와 함께 온라인 형태의 전자회의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속기사가 회의록을 작성한 즉시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올림으로써 회의록 공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일반 국민을 포함하여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⁰⁾

번호	대	회기	기	회의구분	회의일	회의록
1	제209차	제214회	제11회	국회본회의	2017.11.24	회의록
2	제209차	제214회	제12회	국회본회의	2017.11.26	회의록
3	제209차	제214회	제13회	국회본회의	2017.11.28	회의록
4	제209차	제214회	제14회	국회본회의	2017.12.01	회의록
5	제209차	제214회	제15회	국회본회의	2017.12.21	회의록

[그림 9] 국회 전자회의록 화면

또한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회의 운영으로 회의록의 상황 표기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본회의 표결방식 변화에 따른 전자투표 실시 등 전자민주주의 방식 구현으로 인해 국회회의록 또한 다양한 상황 표기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영상회의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회의록이 등장하였는데 국회 내 회의 전체를 동영상으로 제작함으로써 기존 문자화된 회의록에서 더 나아가 영상회의록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국민이 원하기만 하면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의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지난 회의에 대한 내용도 자유롭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다.

20) 조신국, "국회회의록, 인터넷으로 봅시다", 국회사무처 국회보, 2000, p152.

IV. 국회회의록의 발전 방향

1. 국회회의록의 가치 제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국회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모든 활동이 국회회의록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관련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이 보관되고 있다. 국회회의록은 이곳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보존회의록, 전자문서, 영상기록(전자 영상파일), 음성기록(녹음CD, 전자음성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된다.

과거 우리나라 기록물들의 보존 역사를 보면 일부 기록물들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삭제, 파손,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들은 전쟁 과정에서 손상되거나 화재로 인해 소실되기도 하였다.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일부 소실되기도 했지만 20세기 초까지 정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네 곳의 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을 남겼다. 이로써 현재 우리는 남겨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과거의 조선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기록은 생성뿐만 아니라 보존 또한 중요한 임무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국회회의록의 보존가치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알아보고 더 넓게는 회의록의 질적 제고 측면 또한 살펴보려고 한다.

1-1. 보존성 제고

가) 국회회의록의 관리 규정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²¹⁾」의 제

21)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정은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등록한 공공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제하고 공공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국회 또한 이러한 취지하에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법 제10조제1항²²⁾ 규정에 근거해 2000년 1월 1일 국회기록보존소를 설립하여 영구보존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1년 11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과 동년 12월 국회기록물관리규정 및 국회기록물관리내규를 제정하여 국회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표 1]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

구 분	종 류
보존 기간·방법·장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9·30조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3·16·17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14조
전자문서의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6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19조
이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11조
폐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53조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32조 제3항

22)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①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소관 기록물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표 1]에서와 같이 국회기록물은 여러 관련 법규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국회기록물의 보존 기간과 방법·장소 그리고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정에 기록물의 보존 장소, 전자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기록물의 이관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표 2] 국회회의록 보존에 관한 법규

법 규	조 항
국회법	제115조제3항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3·16·17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14조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15조

현재 국회회의록은 국회기록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의 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회의록의 제본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미비된 상태다. 국회회의록의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제11조(회의록의 보존)²³⁾에서 보존회의록은 의장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제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회의록의 보존과 관련한 법규는 국회법 제115조제3항²⁴⁾의 규정과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3·16·17조, 국회기록물관리규정 제14조 그리고 국회회의록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5조의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국회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들에 의해 관리되는 국

23) 제11조(회의록의 보존) ㉠보존회의록은 법 제69조제3항 및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24) 제115조(회의록)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 사무총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 국회에 보존한다.

회기록물들과 비교했을 때 국회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의록의 제본 및 보존과 관련한 규정의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회회의록의 관리 현황

현재 국회회의록의 제본과 관련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회의록의 영구보존을 위해 국회회의록의 발간·보존 등에 관한 규정의 보존회의록 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1년 단위로 제본계획을 수립하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책자로 제본하고 있다.

국회회의록 제본 현황을 보면 2010년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소위원회 회의록의 총계가 1109권에 달했으나 이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제본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회의록의 활용 증가로 배부처가 감소되었고 기타 예산 절감 노력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제본된 회의록의 배부는 영구보존을 위해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의사과, 의원 열람 및 보존을 위해 도서관에 배부한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에 배부하고 있다.²⁵⁾

25) 조영기 외, 「국회회의록의 가치계고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2014, p46~47

[표 3] 국회기록보존소 국회회의록 보존현황 (2020. 1.)

대 별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보존부록			총 권수
					본	위	국	
제헌국회	10<<10>>							20
제2대	4<<13>>							17
제3대	16<<16>>	8<<13>> 【1】						54
제4대	7<<8>>	25<<27>>						67
제5대	9<<9>>	15<<15>>						48
최고회의	【2】	【15】						17
제6대	24<<25>>	57<<10>>						116
제7대	42(6)	31(6)		(2)				73(14)
제8대	11(1)	15(3)						26(4)
3대~8대				【24】				24
비상국무회의								
제9대	22(4)	40(86)						62(90)
제10대	2(1)	4(13)						6(14)
국보위	4	3(15)						7(15)
제11대	14	44(68)						58(68)
제12대	13	36(39)						49(39)
제13대	19	81(28)		74(50)				174(78)
제14대	33	78(52)		102(31)				213(83)
제15대	20	117(35)	1(14)	144(44)				282(93)
제16대	10	123(52)	7(4)	123(44)	51	67	3	384(100)
제17대	10	133(62)	48(55)	133(37)	69	118	1	512(174)
제18대	12(1)	166(54)	56(48)	137(30)				371(119)
제19대	13	191(51)	65(58)	150(18)				419(127)
제20대	8	65(17)	54(30)	48(10)				175(57)
계	386(13)	1,313(572)	231(212)	935(258)	120	185	4	3,111(1,055)

(): 비공개회의록 【 】 : 통권번호 없는 회의록(총 42권) <<> : 복간회의록(총 146권) 제2대 국회 본회의 7회 3호~6호, 8회 1호~37호 미소장

국회는 2000년 1월 1일 국회기록보존소 설립 이후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0조²⁶⁾에 의거한 국회기록물 이관 계획에 따라 의정기록과에서 생산한 회의록을 매년 이관하고 있는데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되는 회의록은 영구보존을 위한 영구보존회의록으로서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비공개 부분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 보유 현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개선 방안

첫째, 국회기록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기록물 중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회의록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외국 의회의 사례를 보면 의회회의록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의회회의록의 관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중요성과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고 국회 또한 기록물관리법 제정 이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재정비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에 있어 많은 개선을 하였으나 국회기록물 중 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회의록의 제본과 관련하여 현재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영구보존을 위한 회의록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고

26)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소속기관은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안에서 보관한 후 국회도서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있는데 이는 국회회의록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국회사무처는 2000년 8월 국회회의록시스템 인터넷서비스 시연회를 가진 이후 현재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국회회의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회의록을 제공하고 있다. 종래 국회회의록은 책자 형태로 보급되었으나 인쇄 및 배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배부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998년 회의록 전산화시스템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200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회의록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²⁷⁾

국회회의록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전자회의록은 접근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었고 그 이용률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회의록의 이용률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전자회의록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므로 전자회의록의 관리에 있어서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1-2. 비공개회의록의 공개

우리나라 헌법 제50조²⁸⁾에서는 국회 회의의 공개 원칙을 규정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비공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27) 윤대근, 남태우, 「국회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2011, p150-151

28)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11대 국회 이후 20대 국회까지의 비공개회의록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회의 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공개회의록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가) 관련 규정

[표 4] 비공개회의록에 관한 법규

법 규	조 항
헌법	제50조 제1항
국회법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
	제57조(소위원회) 제5항
	제65조(청문회) 제4항
	제75조(회의의 공개) 제1항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제4항
	제158조(징계의 의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개원칙)
인사청문회법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2항

국회회의록은 헌법 제50조의 회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국회법 제115조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118조제4항²⁹⁾ 규정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단서조항

29) 제118조(회의록의 배부·배포)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으로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118조제6항³⁰⁾에서 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비공개회의록 보유 현황

[표 5] 비공개회의록 보유 현황

구 분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계
제2대국회	20	-	-	20
제3대국회	2	1	-	3
제4대국회	-	2	-	2
제5대국회	1	9	-	10
제6대국회	1	7	-	8
제7대국회	6	6	2	14
제8대국회	1	3	-	4
제9대국회	4	86	-	90
제10대국회	1	13	-	14
국가보위 입법회의	-	15	-	15
제11대국회	-	68	-	68
제12대국회	-	39	-	39
제13대국회	-	28	50	78
제14대국회	-	52	31	83
제15대국회	-	49	44	93

30) 제119조(회의록의 배부 배포) ⑥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구 분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계
제16대국회	-	39	41	80
제17대국회	-	138	36	174
제18대국회	1	92	26	119
제19대국회	-	109	18	127
제20대국회	-	47	10	57
계	37	803	258	1098

비공개회의록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 그중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이 전체의 약 70%가량으로 비율이 가장 높다.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록은 803건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위원회 중에서 국방위원회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뒤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방위원회의 경우 군사기밀 등 국가안전보장,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 주요 비공개 사유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는 징계에 관한 내용이 주요 비공개 사유였다.

국정감사에서는 258건의 비공개회의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국정감사 또한 국방위원회가 군사기밀 등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한 사유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³¹⁾

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공개 여부 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비공개 기록물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1) 「비공개회의록 보유 현황」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제공

그러나 국회법의 경우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회의록의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개가 예외사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법 제11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에 관한 기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부분은 아직까지 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회법과 국회규칙의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공개회의록의 공표를 위한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비공개회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공개회의록이 작성된 이후에 회의록을 최대한 공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법에서는 회의의 비공개 사유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등과 같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비공개회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공개회의록을 최대한 공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비공개회의록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비공개회의록이 30년 이상 경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 회의록과 관련한 법률들을 보면 국회 비공개회의록의 공표 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비공개된 회의록은 무기한 비공개로 남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록물법과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경우 공개 여부 재분류를 통해 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2. 인공지능과 국회회의록의 미래

앞에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의궤, 직지심체요절 등 과거의 기록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의 글, 금속활자, 반차도 등을 통해 과거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통신 및 영상 기술 및 장비의 발달로 그림과 활자에 의한 책으로의 기록을 넘어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의 세계가 열린 것이다. 여기에 기억장치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의 양과 저장 공간도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의 기록문화가 어떻게 될지는 현대 기록문화유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의 역사와 전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994년 6월부터 국회회의록 작성 과정의 전산화 노력이 시도되었다. 수필속기 방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 방식에서 점차 탈피하여 1995년 처음으로 컴퓨터속기사의 채용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컴퓨터속기 방식에 의한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속기의 도입과 함께 현재는 영상회의록시스템이 등장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효율성을 더욱더 높이고 새로운 방식의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기록문화의 형태 또한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양산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음성인식기술의 발전 상황과 적용 사례를 보고 국회회의록 작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

가) 개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그 핵심적인 기술의 하나인 인공지능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함께 활용 방안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기술은 전통적인 신호처리 분야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므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완성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음성인식기술은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나 낮은 인식률로 높은 완성도가 요구되는 기록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 딥러닝 기술의 개발과 함께 음성인식의 기술적 진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애플 시리(Siri), 삼성 빅스비(Bixby), KT 기가지니 등 음성인식기술이 내재된 스마트폰이나 스피커 등이 출시되면서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기록 관련 분야에서의 도입 논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음성인식기술은 단순한 분야에서의 활용을 시작으로 현재는 단순 음성인식을 넘어 딥러닝 기반의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자연언어처리는 단어나 문장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의 의도까지 이해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디바이스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져 미팅, 강의, 회의록, 재판기록 등 기록 관련 분야에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의 도입과 함께 기록 관련 영역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²⁾

32) 김인택·안대진·이해영,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관리 방안」, 2017, p235~236

나) 음성인식기술의 국내 적용 사례

음성인식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 의회 및 공공기관에서도 음성인식시스템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대전광역시의회, 평창군의회, 고성군의회, 인제군의회 등에서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의록 작성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청각장애인 의원의 필요에 의해 2019년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8명의 속기사가 음성인식시스템을 초고 작성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인식률은 싱글마이크의 경우 정확도 약 90%, 다자 간 마이크의 경우 70~80%의 정확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강원고성군의회, 인제군의회, 평창군의회에서도 2019년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강원고성군의회와 인제군의회의 현재 속기사는 각각 1명씩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회의 환경에 따라 정확도는 70~90%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평창군의회의 경우에는 현재 채용된 속기사가 없어 기간제 속기사나 의회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음성인식기술을 도입하여 회의록 작성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세종시의회, 충주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많은 곳에서도 도입 논의와 함께 음성인식시스템 시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진 2018년 당시 정확도 및 인식률에 있어 업무에 도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아직까지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³³⁾

33) 국회 의정기록과 음성인식 TF 참고자료

다) 음성인식기술의 해외 적용 사례

① 일본

일본은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 수필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2006년 속기사 양성소가 폐지되어 더 이상 속기사 배출이 되지 않았고 이에 일본 중의원에서는 2009년 속기사 대신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중의원은 2009년 일본 교토대와의 협력으로 음성인식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시작하여 2011년부터 약 2000시간 이상의 학습을 시킨 음성인식시스템 모델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음성을 컴퓨터 문자로 자동 변환한 뒤 국회 속기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의회 구성이나 속기 조직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일본은 2011년 음성인식시스템 도입 이후 자연 감소되는 속기 인원을 대체하여 2010년 기준 약 150명의 속기사가, 2019년에는 속기사 약 120명, 일반직 약 20명이 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음성인식시스템 도입이 인원의 감소나 회의록 작성 시간의 단축에 현저한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다.

중·참 양원에서는 속기사의 신규 채용, 양성이 정지되고 새로운 회의록 작성 방법이 모색되었다. 참의원은 2008년부터 기록부 직원이 자기 자리의 컴퓨터로 음성과 영상을 재생하면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꾸었는데 이 또한 속기한 것을 일반 문자로 바꾸는 과정을 단축해 필요한 인력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성인식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구어체의 발언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속기사, 검수자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속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2017년 기준 교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림 10] 음성인식시스템으로 대체한 일본 중의원

20% 정도로 늘어났다. 2011년 이후 속기사는 채용하지 않고 교정 담당만 모집하고 있어 속기사는 줄어들고 교정 직원은 증가하고 있다. 회의는 속기사가 기록하는 회의와 음성인식만을 사용하는 회의

로 나누어지는데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회의의 비율이 70~80% 정도이다.

본회의, 예산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회의에는 속기사가 입회한다. 2011년에는 85% 정도의 정확도였는데 2017년에는 9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음성인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석자가 참석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배석자는 발언자 및 돌발발언 등을 기록하여 교정 담당 직원에게 데이터를 전달한다. 속기사의 경우는 5분씩 교대하며 음성인식 배석자는 30분씩 교대하고 있다.

속기사가 5분 교대를 할 경우 교대 후 회의록을 완성하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수정도 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조사하여 최종 완성하기 까지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발언 기록 자체 수정보다는 발언에 나오는 데이터의 정확도와 자료 조사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료 조사나 사실 확인 등의 작업이 더 많기 때문에 음성인식은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단이고 회의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도 현저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은 음성인식을 의식하지 않고 발언하는데 국회의원 개인별로 음향 모델을 만들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도에는 의원별로 음성인식 정확도 자료를 보여 주었는데 현재 90% 정도의 정확도인 상황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의미가 없어져서 만들지 않고 있다. 음성인식 관련 데이터관리센터는 8명이 관리하고 서버는 한 랙에 6대에서 7대가 들어가는데 랙이 10개 정도 있다.

85%에서 90%까지의 정확도는 높이는 어렵지 않으나 90% 이후는 1%의 정확도도 높이기 어렵다. 85%에서 90%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음향모델을 개선하였고 평균 인식률은 90%이다. 인식률이 좋지 않던 의원도 발언이 쌓이면서 인식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요즘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95%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³⁴⁾

② 독일, 미국

독일은 수필속기사가 30명, 타이피스트(행정원) 20명이 함께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 DNS(Dragon Naturally Speaking)라는 리보이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독일에서는 수필속기사들의 받아쓰기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 DNS 사용 여부는 속기사 재량이며 DNS 도입으로 업무 배분이나 직원 수, 회의록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변화가 없고 외부 타이피스트의 수만 감소하였다.

속기사 인력이 부족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수필속기이며 기록부서 50인 중 속기사는 30인이고 현재 회의 투입 인력은 16인이다. 회의장에서의 음성인식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나 도입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ProCat이라는 디지털식 속기기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하원 본회의 회의록 작성이 주된 업무이다. 현재 음성인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도입 계획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³⁵⁾

34) 한국스마트속기협회, 국회 의정기록과 부서전문교육, 「음성인식과 국회회의록의 연계」, 2020. 5.

35) 한국스마트속기협회, 국회 의정기록과 부서전문교육, 「음성인식과 국회회의록의 연계」, 2020. 5.

2-2. 음성인식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기록 관련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기술의 발전과 함께 각 지자체 의회 및 공공기관 등 여러 속기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위원회 회의록 신속 제공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음성인식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음성인식시스템이 회의록 작성의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할 경우 회의록 작성 시간이 기존보다 감소하고 속기사들의 업무가 경감되어 업무의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여러 지방의회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인식시스템을 회의록 작성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각각의 업무 환경에 따라 음성인식시스템의 도입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음성인식기술만으로 완전한 기록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음성인식시스템의 인식률은 지속적인 딥러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하면 음성 외 다른 조건은 정확히 기록할 수가 없다. 회의록은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시하는 방향 및 행동 양식은 물론 현장의 상황까지도 기록해야 하는 종합적인 기록물이지만 음성인식은 음성의 인식일 뿐 발언의 의도까지 인식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음성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고 앞으로 음성인식기술이 더욱 발전하더라도 비언어적인 부분, 미묘한 의미 전달이나 중의적인 표현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속기사관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책임의식도

빼놓을 수 없다. 회의록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까지 담보하는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책임과 신뢰라는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 규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또한 음성인식기술의 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음성인식기술의 순기능과 더불어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하기에 음성인식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음성인식기술의 역할과 속기사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음성인식시스템으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기술에 맡기고 속기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음성인식시스템이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기존의 업무 개념을 재구성하고 음성인식시스템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좀 더 정확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속기를 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⁶⁾

예를 들면 음성인식시스템을 통해 반복되는 입력 작업은 자동 처리하고 수정·검수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속기사가 담당하는 등의 협업을 한다면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음성인식률의 향상뿐만이 아닌 음성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실무 속기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선제적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음성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자별 음성을 수집하여 화자별 발음모델, 주제별 사용 용어나 약어 등 언어모델을 학습하여 적용하거나 음성인식이 어려운 비정형 자연어 인식률 향상을 위해 국회회의록 관련 음향 및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정보시스템(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영상회의록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도 요구된다.

36) 김효경, "4차 산업혁명에도 굳건, 기록전문가 시속기사" 에듀팡 기사 2018.9.13.
<<http://news.edupang.com/news/article.html?no=11531>>

음성인식기술에 대한 연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성인식시스템의 시범 실시를 통해 직접 적용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국회 환경에 맞게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해 나간다면 더 양질의 회의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 업무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기록되지 않고 기억에 의존한 사상 및 양식은 언젠간 소멸한다. 기록은 기억을 연장시키고 그 기록들이 쌓여 역사를 만들어 내며 미래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록이 가치 있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기록이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도 본인이 폭군이나 악인으로 기록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 것처럼 위정자나 권력자들은 기록을 보거나 통제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듯 선조들의 기록은 역사를 조작하려던 움직임 또한 존재하였기에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기록은 객관성 및 신빙성을 유지하려던 노력이 있어 왔고 원본 그 대로의 보존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과거에는 전쟁과 화재로 인한 소실도 빈번하여 보존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객관성을 유지하며 보존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우리의 임무이다.

앞서 언급된 객관성을 유지한 보존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우리는 이 기록들을 잘 보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현재 국회회의록의 보존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회의록의 보존을 위해 시행하는 회의록의 제본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구체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전자회

의록의 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전자회의록의 관리에 있어서도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회의록의 가치 제고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보관 및 보존을 위해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만 대응해도 충분했지만 요즘과 같은 디지털시대에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같은 온라인 재해에도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기록문화의 형태 또한 변화하여 과거에는 글, 그림 등을 통해 과거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면 현대에 와서는 음성, 영상으로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인공지능은 그 기반기술이며 핵심적인 기술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성인식시스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데 음성인식기술을 활용할 경우 회의록 작성 시간이 기존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음성인식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비언어적인 부분, 미묘한 의미 전달이나 중의적인 표현까지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화가 가능한 부분은 기술에 맡기고 속기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한다면 효율성과 국회회의록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음성인식시스템뿐만 아니라 회의록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의 발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한국기록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현대의 기록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록된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선조들이 기록문화를 잘 보존하여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와 그 시대나 그 시기의 사정뿐 아니라 그 결정이나 사건이 후세에 영향을 미치고 기록에 남겨진 사건이나 내용을 타산지석으로도 삼을 수 있었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 삶의 해안을 얻을 수 있었듯이 후대에서도 지금의 시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침반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국회회의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신광철(2012)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2013) 『후설』
김문기(2015)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김문식, 신병주(2005)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국사편찬위원회(2013) 『조선후기 국무회의록 비변사등록의 현대적 가치』
박윤서(2017)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의 통합 정보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유희연(2009) 『한국정치와 국회회의록 체제의 변천』
신종순, 윤대현, 이귀복, 지찬호(2002) 『기록보존의 실제』
윤대근, 남태우(2011) 『국회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김인택, 안대진, 이해영(2017)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기록관리 방안』
김기섭(2012) 『지방의회 회의기록물 매체에 관한 연구』
김장환(2010) 『국회기록물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한 발전방향』
조영기(2014) 『국회회의록의 가치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속기협회(1998) 『속기 50년사』
김현우(2001) 『한국국회론』

※본 논문은 지면상의 이유로 일부 편집되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은 당신입니다'

홍보부

지난 2014년 10월 9일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문자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됐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한글과 관련된 여러 전시를 함과 동시에 어린이들에게는 한글의 원리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외국인들에게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문화의 놀이터이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전시관 외에도 도서관과 휴게 공간, 용산가족공원으로 이어지는 문화공간이기도 하다.

국립한글박물관의 외관 역시 비범하다. 한글 모음의 제자 원리인 천지인을 형상화 하여 하늘의 쉼, 사람의 쉼, 땅의 쉼을 쉼이 쌓아 올린 공간에 한글을 담고 한국 전통 가옥의 처마와 단청의 멋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그러면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제1부,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국립한글박물관의 상설전시관은 '한글이 걸어온 길'이라는 주제로 한글이 창제된 때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총 3부로 나눠서 다룬다. 전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이다. 이 구조물을 시작으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계기, 한글을 만드는 과정, 한글 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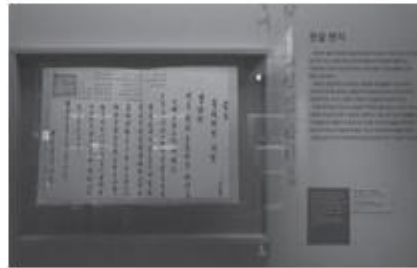
에 대한 반대, 한글 창제와 「훈민정음」 반포, 한글 창제 이후의 변화 등을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구성한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한글 창제 전, 우리는 어떤 글자를 쓰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유익한 내용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활용하여 우리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차차 표기법’이라고 한다. 차차 표기 방식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쓰여 왔고, 특히 이두는 조선 후기까지 쓰였다고 하니 차차 표기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존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부. 쉽게 익혀서 편히 쓰니

두 번째 공간에서는 한글이 조선시대 사회·문화 전반에 가져온 많은 변화, 교육, 종교, 예술, 일상생활 등에 더욱 폭넓게 쓰이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한글은 조선 후기가 되어 일상적인 문자로 자리잡게 되는데 한글이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인 각종 문서나 편지, 문학작품, 생활용품 등과 같은 전시물들을 볼 수 있다.



서구의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기계화는 우리 한글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대량으로 생산된 한글 인쇄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 우리나라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글의 기계화가 대두되었고 한글 타자기의 개발과 글자

판 및 한글 코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날 한글 정보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전시관에는 1914년 영문 타자기에 한글 활자를 붙여 만든 이원익의 타자기부터 시작해서 송기주, 김준성, 공병우 등이 만든 타자기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제3부.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기

마지막 공간에서는 한글이 드디어 조선의 공식 문자가 되었지만 일본에 의해 다시 억압받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일제강점기라는 험난한 시기에 국어학자들과 국어 연구 단체들은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기 위해 교육 활동에 힘썼다. 또한 광복 이후 더욱 활발해진 한글 연구의 결과물들과 함께 한글이 단순히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뿌리로 여겨졌음도 보여 준다.

나라를 잃고 억압받던 힘든 시기에도 끈질긴 노력으로 우리말과 한글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매일 모든 생활공간에서 한글을 읽고, 쓰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광고는 우리가 오늘날 각종 매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이 광고에 쓰였던 한글 디자인에 대한 전시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말의 특성과 구조를 이용해 시각, 청각 등을 자극하며 사람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와 자판, 컴퓨터 속의 한글 글꼴 등은 모두 한글 정보화의 산물이다. 컴퓨터는 서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파벳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되었지만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과 같은 한글 정보화를 이루게 된 것이다. 서양의 타자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타자기를 한글에 맞게 바꾸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기술 개발의 결과로 일반적인 한글 자판 외에도 속기 자판, 필기 인식 등 다양한 입력 방식이 만들어져 쓰이고 있다. 이 전시 공간에는 속기사들에게 친숙한 속기 기계(워드픽처, 감퓨터)도 함께 전시되어 있다.



한글의 역사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구성해 놓은 전시 관람을 마치고 한 층 위로 올라가면 기획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기획전시는 '문자혁명'으로 한국과 독일의 문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가 15세기 중반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고 인쇄술을 개량하던 시기에 독일도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세계 문명에 한 획을 그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독일에서 인쇄술을 통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눈여겨본 이번 전시는 한국과 독일의 '같고

도 다른, 다르고도 같은' 문자혁명의 길을 아주 흥미롭게 그려 놓았다.

아직도 상설전시관 마지막 전시 공간에 전시되어 있던 '한글은 당신입니다'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이라는 경구에 빗대어 한글은 곧 나 자신이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 나 자신의 역사이기도 한 한글의 역사를 지루할 틈 없이 풀어놓은 국립한글박물관, 꼭 한번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최초의 속기사 출신 홍보기록팀장, 마포구의회 유영란 팀장을 만나다!

홍보부



지난 2019년 마포구의회는 사무처 직제 개정을 단행하며 홍보기록팀을 신설하였는데, 초대 홍보기록팀장으로 속기사 출신인 유영란 팀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같은 해 1월 고양시의회에서 속기사들로만 구성된 의정기록관리팀이 조직되어 속기사 출신이 팀장에 임명된 일은 있었지만 행정직과 속기직이 함께 근무하는 부서의 팀장직에 속기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유영란 팀장이 최초인데요, 이 엄청난 신

화를 이루어 낸 유영란 팀장을 직접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홍보부 늦었지만 홍보기록팀장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영란 감사합니다.

홍보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영란 마포구의회에 홍보팀이 처음 생긴 거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요.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 부담이 크지만 그만큼 착실하게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홍보부 홍보기록팀 소개 좀 해 주세요.

유영란 저희 홍보기록팀은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이 한 팀이에요. 저까지 4명은 속기직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행정직이에요. 속기직은 회의록 작성 등 기록 업무를 주로 하고 행정직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한 팀이기 때문에 너무 괴리가 있으면 안 되니까 홍보팀이 홍보 책자를 만들 때 기록팀이 교정을 봐 주고 하는 것은 같이하고 있어요.

홍보부 홍보기록팀장으로 임명되신 과정에 대해 듣고 싶어요.

유영란 옛날에 홍보기록팀이 생기기 전에는 의정팀·의사팀·의안팀 이렇게 3개 팀이었는데 우리 사무분장규칙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의정팀장은 행정 6급으로 보한다', '의사팀장은 행정 6급으로 보한다', '의안팀장은 행정 6급으로 보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행정 6급만이 팀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의 개정을 제가 제안했어요. 행정 6급 그리고 속기 6급도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었지요.

홍보부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유영란 그래서 우리도 팀장을 할 수 있느냐고 서울시에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답변이 온 거지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질의·답변 내용, 공무원 조례, 사무분장규칙 다 뽑아서 의장님께 드렸어요.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네' 그러면서 사무분장규칙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셨어요. 당시 의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검토 과정 거치고 운영위원회까지 통과됐어요.

홍보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유영란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운영위원회 통과되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되는데 아무래도 행정직에서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연말, 1월, 2월

회기에서도 통과가 안 됐어요.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3월 회기만 지나면 끝인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해당 규칙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니까요.

홍보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영란 다시 한번 의장님을 찾아갔지요. 의장님은 되게 합리적인 분이셨는데 상황을 말씀드리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보고를 전혀 못 받으셨던 거예요. 한 번 더 의장님을 설득했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홍보기록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홍보부 진짜 애 많이 쓰셨네요.

속기는 언제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유영란 1981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제가 반장이었어요.

국회 채용시험에서 떨어졌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지인한테 연락이 와서는 지방의회에서 일해 보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지요.

여담이기는 한데 재미있는 게 그때 제가 둘째 아이 임신 7개월째였거든요. 남편이 속으로 누가 배부른 사람을 뽑아 주겠냐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당히 합격을 한 거지요. 더 재미있는 건 출근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출산하러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일을 즐겁게 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정말 재미있게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속기사에 대한 대우가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후배들한테 미안하고 안 쓰럽기도 해요.

홍보부 혹시 후배들에게 따로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유영란 저희뿐 아니라 모든 의회에서 속기직이 소수직이라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내가 내 식구를 위해 주면 남들도 우리를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서로 협력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 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로 협력하면 금방 해 나갈 수 있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어요.

유영란 제가 내년엔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남은 시간 특별하다고 할 계획은 없지만 저는 제가 했던 업무에 대한 애정,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차근차근 자기 자리를 준비해 갈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홍보부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기, 기자 그리고 속기사

이수만 (전국속기학원연합회 회장)



서기(書記), 기자(記者), 속기사(速記士)로 기(記)자와 연관 있는 직업으로 한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인 경북 군위에서 초·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전주에서 정아랑 선생이 오셔서 속기에 대해 1시간 동안 특별 공개 강의를 하고, 8쪽의 '한글속기'란 조그마한 유인물을 팔고 가셨습니다.

대구상고에 진학을 했는데, 상업 과목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웅변과 작문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전국애국웅변대회 종합특등(문화공보부장관상) 등 많은 상을 받았으며, 작문도 제1회 전국고교생현상작문 모집 최우수상(홍익학원 이사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 당시 웅변을 공부하면서 박정희, 윤보선 등 대통령후보 연설회에 가서 연설을 듣고 속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속기를 배우려고 속기학원을 찾았으나 대구 시내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구입한 정아랑 선생의 한글기음식 속기법과 서점에서 구입한 남상천 선생의 남천식, 장기태 선생의 일파식, 김천한 선생의 고려식 속기법을 공부했으나 같은 글자는 '가' 자밖에 없고 모두 달랐습니다.

1969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해서 한국웅변속기연구소를 설립하여 웅변과 속기를 가르쳤습니다. 이미 익힌 정아랑 선생의 기본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속기법을 만들어서 처음엔 프린트물로 가르쳤습니다. 1975년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후 이수만응변속기교육원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응변과 속기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별세하시고 고향의 사과밭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아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1977년 행정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의흥면서기로 2년 반 동안 집안을 돌보며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군위군청 사회과 복지계로 발령이 나서 군서기로 1년간 근무하고, 도청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경상북도 서무과 경리계에서 행정서기로 6개월 근무한 후 신문기자 시험에 합격이 되어서 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영남일보 지방부에서 수습기자를 마치고 고향인 군위 주재기자로 근무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정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영남일보는 대구매일신문사로 합해져서 처음엔 기사를 안 시켜 주고 판매국 경리 담당 일을 했습니다. 대구상고를 나왔지만 경리 일은 도청에서도 신문사에서도 적성에 맞질 않았습니다.

신문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한국속기연구원이란 속기 과외교습소를 내어서 속기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때 대구매일신문에서 '넘버원을 찾아서'란 연재물이 있었는데 '속기사 이수만 씨'라는 기사를 보고 수강생들이 많이 배우러 왔습니다. 속기연구원이 잘되어 직원도 부원장, 강사, 상담원 등 5명을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신문사에서 편집국 영양·청송 주재기자로 발령이 나서 학원은 아내와 누이동생한테 맡기고 대구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한 군에 10여명의 주재기자가 있지만 그때는 한 명밖에 없어 언론대표로 기관단체장 모임도 함께 했으니 옛날 암행어사처럼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1982년 신도문화사에서 '최신한국속기'를, 1984년에 도서출판 대일에서 수정 증보판 '최신한국속기' 책을 발간하고 1986년에 한국속기학원으로 교육청에 등록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고향인 군위에서 대구로 1년간 출퇴근을 하면서 기자 생활과 속기학원 원장 겸 강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1987년 편집국 사회2부 기자로 발령을 받아서 본사에서 근무하며 속기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988년 3월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의 공천을 받아 만 38세에 대구 중구에 서 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낙선 후 경북일보 사회부장, 대경신문 편집국장을 하였고 초대·2대 대구 중구청장, 15대·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후 정치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까지 수필속기와 CAS컴퓨터속기를 강의하며 수많은 속기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우연히 알게 된 속기가 평생 직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속기학원을 하면서 보람된 것은 두 딸이 속기를 배워 법원에서 속기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도 속기학원 부원장 겸 한국녹취사무소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 제가 죽어도 속기학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사회교육자로 칠십 평생 걸어온 길에 변화와 굴곡이 많았지만 결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임수현 속기사 인터뷰

홍보부



여러분들은 속기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처음 접하셨나요? 사실 속기사라는 직업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연찮게 속기사라는 직업을 접하고 그 직업적 가치에 매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거에 사관이 남겼던 귀중한 기록유산과 더불어 현재에도 기록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면서 속기사들의 역할 또한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지요. 그중 수원가정법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임수현 속기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홍보부 여러 종류의 법원이 있는데 그중 가정법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임수현 가정법원은 흔히 가정에서 가족 간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법원으로 이혼이나 가정 내 폭력에 관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또 개명이나 호적과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부 가정법원에서 속기사가 하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임수현 주 업무로는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을 할 때 법정에 들어가 증인이나 당사자가 증언·진술하는 내용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으며 속기를 하고 사무실에 돌아와 녹음한 내용을 다시 한번 청취하며 정리한 후 결재를 올립니다. 그리고 속기 업무 외에 일반 행정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 가정법원 내 속기사는 몇 분이고, 서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수현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정법원은 규모가 아직 작다 보니 속기사는 현재 3명이 있지만 2명은 개명과 관련한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이 모든 재판부의 증인·당사자 신문에 참여하여 속기 업무를 합니다.

홍보부 속기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수현 속기사가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증인·당사자들의 증언이나 진술을 속기한 다음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정리하고 법원 내 결재시스템을 이용해 결재를 올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홍보부 속기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임수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 금융기관 등에서 일을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고 일이 적성에도 맞지 않아 다시 공부하여 대학에 다녔습니다. 졸업을 하기 전에 직업을 찾던 중 속기사란 직업이 눈에 번쩍하고 들어와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여 현재 가정법원 속기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홍보부 다른 법원에서도 일해 보셨나요?

임수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홍보부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가정법원의 장단점이 있다면 뭔가요?

임수현 가정법원은 다른 법원에 비해 속기 업무가 적기 때문에 일반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속기를 하는 횟수가 적은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은

가정사를 다루는 법원이다 보니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는 저 자신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피해아동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어떤 때에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부 가정법원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나요?

임수현 아직까지 법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는 엄마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엄마가 아닌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유전자검사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아기를 받은 사람(기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가정법원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당시에 어떤 아기가 아파서 병원 진료를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출생신고가 될 때까지 진료를 못 받았던 사례가 있었는데,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혜택을 못 받거나 아이가 학대를 당해도 그 아이를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부 속기사로 일하면서 생긴 직업병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임수현 속기사로 20여 년간 일하다 보니 손가락, 손목, 어깨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속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하다 보면 직업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부 가정법원 속기사 혹은 속기사로써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임수현 모든 것은 다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실함과 책임감은 꼭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부 가정법원 속기사로써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을까요?

임수현 수원가정법원은 아직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부 법원 속기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임수현 제 경우에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던 중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자수가 올라갈 때마다 성취감도 있어서 뿌듯했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속기사로써 인정받으며 속기 업무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속기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았기에 후배님들도 쉽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후배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후배님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 파이팅! 속기사 파이팅!

홍보부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구리의 운칠기삼(運七技三)

권성민



국회 속기사라는 목표를 정하게 된 과정

저는 평소에 역사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소재로 한 웹툰을 자주 보았는데 거기서 사관에 대해 자세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 본 결과 현대판 사관이 속기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는 속기사, 그중에서도 속기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회 속기사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값이 너무 부담이 되었고 공부할 때 생활비도 부담이었습니다. 할부로 사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했기에 공부에 집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건설현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 키보드를 사고 남는 건 생활비로 쓰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속기공무원을 목표로 속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 도전하기에는 속기를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 불안했지만 결국 국회 속기사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국회 첫 시험

19년도 국회 첫 시험에서 필기에 합격했지만 실기에서 소수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실기에서 떨어질 당시 이미 1급을 충분히 딸 실력이었고 실기시험 전 한글속기 시험에서 1급도 땀습니다. 하지만 실기에서 떨어진 후 1년 넘게 필기 공

부를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참담했습니다. '필기를 붙어 봤자 뭐하나, 실기시험에서 떨어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한 그 노력으로 다른 경쟁자들만 도와주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실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의 재도전 그리고 뜻밖의 난관

저는 다시 도전하면서 다음 시험에서도 필기에는 합격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기에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것이었는데 그 해에 국회 채용 TO가 너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이번에는 작년과 반대로 필기가 아닌 실기에 많이 투자한 시간들이 헛수고가 될까 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만 불운한 것 같았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목표를 향해 달리는 데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 노력이 행운을 불렀고 그 행운들로 결국 필기에도 붙었고 실기시험과 면접에도 붙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불운한 게 아니라 누구보다 행운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않은 2차 도전

한글속기 시험은 정해진 점수만 넘기면 누가 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같은 자격증을 가지는 절대평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필기시험 그리고 국회 실기시험은 상대평가입니다. 커트라인은 꼴찌가 만드는 것이고 꼴찌를 바라보며 커트라인 근처에 머물도록 공부하면 붙을 확률이 낮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자신과 타협하며 실기 준비를 했던 지난 첫 번째 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은 후 누구보다 잘해야겠다, 변수가 있어서 1등은 놓칠 수 있어도

2등 밑으로 떨어지는 실력은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필기와 실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소수점 차이로 떨어지든 10점 차이로 떨어지든, 마찬가지로 필기시험에서도 1점 차이로 떨어지든 10점 차이로 떨어지든 불합격은 불합격일 뿐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위 인식은 냉정했기에 스스로 아까워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깝게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렇게 떨어져 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더 힘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깝게 실기에서 떨어졌던 작년의 저와 타협하지 않고 일등 말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작은 차이로 떨어졌다는 것을 자꾸 주위에 설득시키려 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언급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더구나 떨어진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틀린 문제만을 인식하고 그로 인해 더 아깝게 떨어졌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찍었는데 빗나가서 점수를 까먹은 문제들 혹은 답을 바꿨는데 바꾸기 전이 정답이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만 기억하고 자신이 찍어서 맞힌 문제나 운이 좋게 얻어걸려 맞힌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필기시험 혹은 실기시험에서 1점 차이, 2점 차이로 떨어졌더라도 그 문제 하나 하나의 공부량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문제 하나를 찍어서 맞혔고 틀렸고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한두 개 찍어서 틀리더라도 떨어질 수 없는 점수를 만들어야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저는 누구보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공부를 다시 하면서 '속기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몇 달간 건설현장

에서 돈을 벌고 바로 키보드를 사서 쉬지 않고 한글속기 자격증 공부 그리고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필기 준비, 정말 마음 놓고 놀아 본 기억도 없이 여러 사계절을 지냈고 매년 겨울의 눈을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번 겨울도 또 공부하면서 보는구나.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이번에는 붙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했고 곳곳이 버텨 나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노력만이 아니라 엄청난 운이 따라서 붙은 것입니다.

지금 국회 속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만 불행한 것 같고 본인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을 버텨 나가는 하루하루가 결국 합격을 향한 과정이고 다른 경쟁자들 하나하나를 이겨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더 힘든 만큼 붙는다. 대신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힘들더라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붙으면 그 과정들이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험생활만 끝낸,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인 신입입니다.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과정들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그랬듯이 곳곳하게 잘 버텨 내겠습니다.

이번 봄은 책이 아닌 커피 한 잔을 들고, 인강이 아닌 노래를 들으며, 항상 멀리서 바라만 보던 국회가 아닌 저의 직장 국회에서 윤중로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이지희



안녕하십니까? 2020년 국회 속기직에 합격한 이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 속기사 준비를 시작하고 2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과정을 글로 적어 보겠습니다.

국회 속기사

2017년에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검색창에 공무원 직렬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때 맨 위에 찢던 것이 국회 속기사에 관한 것이었고 그 글을 보자마자 국회 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부모님께 키보드를 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로 배웠습니다. 270자 정도에서 슬럼프가 와서 한 달 쉬다가 마음을 다잡고자 친구와 국회로 구경을 왔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헌정 기념관 3층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밥도 맛있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뻐서 꼭 합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

속기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필기 준비를 시작했는데 강의는 신청해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독학을 했습니다. 한국사, 행정학, 헌법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합격 하자는 전략으로 공부했는데 영어 점수가 모자라서 탈락을 했습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집에 와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에 대한 후회가 커서 온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시험 때는 국어와 영어 점수도 잘 받자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험 때 필기시험에서 영어 문제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던 경험이 있어서 영어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하느라 공부에 집중을 못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제 스스로도 영어 실력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결과 두 번째 시험에서는 첫 번째보다 많이 오른 영어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기·면접

실기시험을 보던 날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눈을 감고 일부러 조금 졸았습니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서며 너무나도 큰 국회에 너무나도 작은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이 좋아서 실기시험에서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지하철을 타고 노량진에 있는 스피치 학원을 다녔는데 준비하는 내내 떨어질 것 같아서 우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직렬을 준비하던 같은 반 언니가 면접을 보기 전까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10일 정도 같이 샐러드만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샐러드만 먹어서 더 우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속기직은 전체 직렬 중 첫 번째 날에 면접을 보았고 저는 그중에서도 첫 번째 면접자였습니다. 걱정은 많지만 잘 떨지 않는 성격이라 대기실에서도 떨지 않았

는데 면접장으로 걸어가면서 복도에 울리는 제 구두 소리를 들으니 여기서 떨어지면 1년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떨렸습니다.

합격

최종 발표가 나기 전날에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을 설치고 아침 9시부터 국회채용사이트를 새로고침 했는데 거의 11시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깬 후에는 합격자 명단에서 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이런 부담감을 안 느껴도 된다는 안도감에 10초 정도 울었습니다.

속기 자격증을 따고 2년간 국회 속기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말할 사람도 없어 외로웠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고 나서 다른 직렬 동기들과 성민 오빠, 지수를 만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여담으로 성민 오빠와는 2019년도에 필기시험을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보았습니다. 처음 본 사이였지만 둘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같이 영어 답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1년이 흘러 실기시험을 볼 때 다시 만났는데 최종 합격도 같이 해서 신기했었습니다. 최근에 처음 만났던 학교로 성민 오빠와 같이 시험 감독을 갖었는데 둘이서 19년도에 떨어졌던 과거를 회상하며 웃픈 웃음을 지었습니다.

후기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선배님들이 대단하시다고 느낍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남은 교육 기간 동안 실력을 올려서 의정기록과에 누가 되지 않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표를 향한 노력

허지수



속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학창시절부터 대학은 가야 한다는 등 떠밀림에 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내게는 어떠한 것도 흥미가 없었다. 높은 학과점수를 받으면 현재 배우고 있는 것에 관심과 흥미가 생길까 해서 학점 4.0 이상의 성적을 계속 유지해도 휴학과 자퇴가 머릿속에 아른거렸다.

그때 내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우의 컴퓨터를 통해 학습지원속기사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내 귀로 듣고 있는 교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글자로 쳐지는 것을 보니 신기했고 저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그때부터 속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격증부터 길을 찾기까지

2016년 1월, 단순히 집에서 제일 가까운 속기학원에 찾아갔다. 처음 속기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았을 때 어렵다고 느껴져 3급 자격증이나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래서 속기를 처음 배울 때 나의 목표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닌 과제 레포트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리를 익히고 속도가 점점 나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누름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사람의 발언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게 됐을 때 자격증에도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졸업 전에 학업과 병행하며 3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졸업하고 나서 그 자격증으로 녹취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다.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말을 풀어내는 기계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기록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는 기록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넓게 바라본 결과 국회 속기사를 알게 되었다. 속기사가 남긴 기록이 역사적인 자료가 되고 그것이 당시의 시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록이 된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나도 국회 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국회 속기사가 되기 위한 과정

국회 속기사가 되려면 필기·실기·면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부족함을 잘 알았기에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으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도전이 무서웠다. 그러나 만약 떨어진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란 마음으로 과감하게 첫 필기시험 공부에 도전하기로 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3시간 이상씩 공부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암기하고 또 암기했다. 쉬는 날 없이 무리하게 공부한 탓에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다.

필기 공부를 하며 하루에 한 시간씩은 키보드를 치며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 2·3급 자격증밖에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필기를 준비하기 전 19년도에 있었던 두 번의 한글속기 시험에서 모두 아깝게 1급을 따지 못한 것이 떠올라 20년 1차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때문에 필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자는 시간을 줄여 가며 준비한 결과 1급을 취득할 수 있었다.

8월 22일 필기시험 날, 후회 없이 준비했다고 자신했지만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시험지를 펼치자마자 머리가 새하얗게 되고 시험 시간 중에 비바람과 천둥·번개가 치는 바람에 집중력이 왔다 갔다 했다. 당연히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감

사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실기와 면접을 준비할 때도 필기 준비하느라 많이 뒤쳐진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에 연습을 반복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도 실기를 앞두고, 면접을 앞두고 내가 이 과정을 넘을 수 있을지 항상 걱정이 되었다. 그만큼 수험생으로서의 기간은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회 속기사가 되기 위해 준비했던 과정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쉽 없이 무식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돌아볼 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해 내 삶에 '성취'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무식하게 달려왔던 이 시간들을 통해 성취라는 것을 맛봄과 동시에 노력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어느덧 국회에 들어온 지 4개월이 조금 넘었다. 이곳에 들어오니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아 아직은 적응하기 바쁘고 실력을 쌓아 가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선배님들께서 원고를 작성해 가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심과 함께 나는 언제 저렇게 듣고 기록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곤 한다. 밤늦게까지 열심히 번문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며 나도 이제 공무원이라는 들뜬 마음을 버리고 다시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문장을 셀 수 없이 입으로 내뱉었는데 요즘 그 문장을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다. 해야 될 것들이 쌓여 신문이 밀려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을 다 보고 독서를 하면서 다시 지식을 채워 가기 위해 달리고 있다.

이곳이 첫 직장이라 많은 면에서 미숙해서 배워 가야 할 것들이 많지만 묵묵히 노력해 간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20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홍보부

지난 2020년 11월 27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장에서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하여 세미나 발표자 등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해당 세미나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온라인상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 볼까요?

구 분	주 제	발표자
제1발표	Untact 환경과 회의록	김한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제2발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속기사의 역할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제3발표	비대면 시대 속기직무 개발 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 국내외 속기 산업 비교를 중심으로 -	최윤정 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
종합토론	비대면 시대의 속기산업의 역할	좌장 : 조정운 토론 : 김한우 김주영 최윤정

이날 학술세미나는 총 4개의 발표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발표는 'Untact 환경과 회의록'이라는 주제로 김한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는데요. 김한우 교수님께서서는 해당 발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보편화된 지금의 현실을 소개해 주시며 해당 화상회의에 속기사가 참여하거나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회의록을 작성·제공하는 속기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속기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주영 교수님께서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편화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의 속기사의 역할과 속기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면 수업에서도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기사들은 청취·운필·수문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에 더해 학과 전공에 대한 사전지식 획득과 수업 후 요약문 작성·제공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제3발표는 '비대면 시대 속기직무 개발 방향에 대한 소고(小考) - 국내외 속기 산업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최운정 대한상공회의소 책임연구원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최운정 책임연구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속기사는 여전히 산업 및 직업 분류에서 전문성을 지닌 직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시며 세무사·관세사 등과 유사한 수준의 전문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속기 관련 직무 재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조정운 한국속기학회장님의 진행으로 발표자들의 종합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속기사들에게 어떤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는지에 관한 주제와 음성인식·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속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또 하나의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2020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 온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 마음으로 다시 준비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열정과 동기를 부여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2020 한국속기학회
학술세미나 풀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54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18시 30분에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5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정숙 총무재정이사외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고, 제28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서정민 회원, 은상 정지은 회원, 동상 김소라 회원으로 시상은 이주성 회장이 해주셨다.

다음으로 이주성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김덕진 이사장이 회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장을 대리하여 의장단에 등단해 참석한 귀빈들을 소개하였다.

이후 회의는 김덕진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회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20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김덕진 이사장으로 부터 결산서 설명을 들은 후 김점동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의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는 후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다음 세 번째 부의안건인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한 후 이유진 회원으로부터 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집행부의 복안을 들은 후 찬성하면 박수로써 통과시키자

는 의견을 듣고 의장으로부터 현 이주성 회장을 재추대하고 부회장으로 정순화·한순덕 회원 그리고 이사로 손숙자·김점동·김한우·신은경·정상덕·강지유·김경재·김미라·유미형·이진강·정숙·조미경 회원을 추대하고, 새로운 감사로 이강욱·문선희 회원 그리고 신임 부서장에 홍보부는 강지유, 사업부는 유미형, 총무재정부는 정숙, 국제부는 조미경, 회원부는 권오정, 연구위원장은 백순정 회원을 추대하자는 집행부의 복안에 전 회원이 찬성하여 새로운 임원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네 번째 부의안건 기타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상 4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4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입은 마스크로 닫고, 서로의 관계는 거리두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도 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꽃을 피우고 희망을 줍니다.

새로 꾸려진 홍보부의 첫 작품으로 조심스레 또 하나의 숫자를 보태 제57호 속기계를 내놓습니다. 비대면으로 지친 우리 속기인들의 마음에 따뜻하고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희망해 보며,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흔쾌히 함께해 준 우리 홍보부장과 기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유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부장을 맡게 되었지만 이사님과 기자들의 도움 덕에 어렵지 않게 해낸 것 같아요. 모두모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된 홍보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우

저에게는 벌써 세 번째 속기계가 되었네요. 첫 번째 후기를 쓴 게 엇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속기계 작성에 이것저것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함께해 주신 선후배님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 서

제가 참여한 세 번째 속기계인데도 여전히 이 책 한 권을 받아들 때면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속기계 제57호 발간에 애써 주신 홍보이사님과 홍보부장님 이하 모든 홍보부원들께 참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람

처음이라 우왕좌왕 서툴렀지만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

속기계를 그동안 보기만 했지 제가 직접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완성하고 보니 참 뿌듯하고, 이전에 작업하신 분들의 노고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홍보부 선배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 혁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홈페이지 www.k-steno.com
이메일 seamnuri@naver.com
내용 표지그림·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 발전 기금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회 발전 기금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7호 **속기계**

발행 2021년 7월

발행인 이주성

편집인 김정동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홈페이지 <http://www.k-steno.com>

비매품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